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84호 [루계 제23401호] 주체100(2011)년 3월 25일(금요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사상과 령도를 한마음
한뜻으로 받들어나가자!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께서

조선인민군 무장장비부문 일군열성자대회 참가자들을 만나시고 축하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평양에서 진행되고 있는 조선인민군 무장장비부문 일군열성자대회 참가자들을 만나시고 대회 성과를 축하하시였다.

언제나 마음속에 그리며 따르던 경애하는 장군님을 모시고 영광의 기념촬영을 하게 된 크나큰 감격과 환희로 하여 참가자들의 가슴은 세차게 끓어번지고있었다.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께서 금수산기념궁전광장에 나오시자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성이 천지를

진동하고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를 목숨으로 사수하자!>,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를 위하여 한목숨바쳐 싸우자!>, <총포탄!>, <결사옹위!>라는 우렁찬 구호의 함성이 맑고 푸른 하늘가로 메아리쳐갔다.

격정의 환호를 터치는 대회참가자들은 위대한 선군혁명령도로 영웅적조선인민군을 백전백승의 무적의 강군으로 키워주시였으며 우리 군대와 인민을 승리와 영광의 한길로 현명하게 이끌어 주시게시는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 최대의 영예와 가장 뜨거운 감사를 드리면서 열광적으로 환영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영광의 환호를

울리는 대회참가자들에게 답례하시며 따뜻한 인사를 보내시였다.

당과 군대의 책임일군들인 김정은동지, 리영호동지, 김영춘동지, 장성택동지, 김정각동지, 박도춘동지, 주규창동지,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들인 김원홍동지, 김명국동지, 정명도동지, 리병철동지, 최부일동지, 김영철동지, 최상려동지, 윤정린동지, 국방위원회 국장들인 현철해동지, 리명수동지와 조선인민군 장령들이 여기에 함께 참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께서는 투철한 수령결사옹위정신과 선군혁명위업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을 간직하고 당이 제시한 주체적인 무기, 전투

기술기재해소관리사상을 관철하는데 크게 이바지하고있는 대회참가자들을 열렬히 축하하시오 그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무장장비부문 일군들은 누가 알아주건말건 그 어떤 명에도 보수도 바람이 없이 무기, 전투기술기재에 뜨거운 정과 온넛을 기울이는 순결한 량심의 인간, 진정한 애국자, 나라의 귀중한 보배, 우리 당의 참된 총대동지들이라고 하시면서 그들의 위훈을 높이 평가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대회참가자들을 비롯한 무장장비부문의 전체 일군들과 군인들, 과학자, 기술자, 종업원들이 사회주의 조국수호의 위력한 보검인

무기, 전투기술기재의 싸움준비완성에서 일대 혁신을 일으켜 국방력강화에 적극 기여함으로써 당의 크나큰 신임과 기대에 충성으로 보답하리라는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전체 대회참가자들은 친히 자기들을 만나시여 따듯이 고무격려해주시고 대개 같은 사랑과 은정을 베풀어주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에 대한 다함없는 고마움에 솟구치는 걱정을 누르지 못하면서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앞에 지닌 성스러운 사명과 임무를 훌륭히 수행함으로써 인민군대의 전투력을 백방으로 강화하고 조선혁명의 종국적승리를 기어이 이룩하고야말 철석같은 맹세를 다지였다.

본사기자도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재일동포들에게 위문금을 보내시였다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일본에서 일어난 대규모의 지진과 해일로 피해를 당한 재일동포들에게 위문금 50만 US\$를 보내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숭고한 동포애가 어

러 위문금은 단합된 힘으로 지진피해후과를 하루빨리 가시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있는 총련 일군들과 동포들에게 고무적힘을 안겨주게 될 것이다.

본사기자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 탄생 100돐기념 민주공고준비위원회 년차총회 진행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 탄생 100돐기념 민주공고준비위원회 년차총회가 17일 킨사에서 진행되였다. 준비위원회성원들과 정당, 단체 대표들이 총회에 참가하였다. 총회에서는 준비위원회의 지난해 사업이 총회되고 2012년 태양절

까지의 사업계획이 토의되였다. 준비위원회 위원장인 민주공고공산당 중앙위원회 부총비서 오메페 가스통 음보오는 2012년 4월 15일을 인류공동의 명절로 보다 뜻깊게 맞이하기 위하여 김일성주석의 위대성과 불멸의 업적, 그이께서 창시하신 주체사상을 광범히 소개

선진하기 위한 활동을 보다 적극화해나가자고 호소하였다. 준비위원회는 당면하여 3월 25일부터 4월 25일까지의 태양절기념기간에 다채로운 정치, 문화행사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본사기자

주체사상은 영원한 승리의 기치 남조선인민들의 드림없는 신념

《주체사상은 영원히 꺼질줄 모르고 격찬하였다. 이는 우리 시대의 화불이며 민중이 향유하는 사상이다.》, 《불멸의 불후의 사상리론활동과 정력적인 령도로 주체사상을 더욱 발전공부화해나가는 김정일장군님께서 계시여 이 위대한 사상은 오늘날도 깨일도 영원히 민족자주위업의 승리의 기치로 빛날것이다.》

이것은 시대와 민족, 인류가 나아가갈 앞길을 환히 밝혀주는 영생 불멸의 주체사상을 민족자주위업의 승리적전진을 담보하는 영원한 기치로 굳게 믿고 따르려는 남조선인민들의 드림없는 신념의 목소리이다.

경북대학교의 한 교수는 주체사상은 민중의 투쟁에 의해 혁명운동이 전진하고 사회와 력사가 발전한

다는 진리를 밝힌 불멸의 사상이라고 격찬하였다.

충북대학교의 한 학생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주체사상에 대하여》에 대한 대학생들의 토론회에서 주체사상을 따라 전진하자고 하면서 이 위대한 사상은 오늘날도 깨일도 청년운동의 투쟁방향이다, 우리는 영세불후의 주체사상을 향심으로, 신념으로, 의지로 간직하고 주체의 기치아래 더욱 과감한 운동을 전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서울의 김성민교수는 우리 민족의 진로는 오직 주체사상의 진리속에서만 찾을수 있다, 민중에게 참다운 인생행로, 운명개척의 방도를 명시해주고있는 절대적전진인 주체사상을 더욱하여 민족의 앞날을 개

척해나갈수 있다고 확신에 넘쳐 말

강화하시였다고 격찬하였다. 서울대학교의 한 교수는 좌담회에서 경애하는 김정일명도자님에 의해 주체사상은 오늘 시대의 위대한 사상으로 풍부화되었으며 자주적인 새 세계를 건설하고 자기 운명을 개척해나가기 위한 투쟁의 기치, 승리의 기치로 되고있다고 말하였다.

인천의 대학생 차승길, 부산의 지식인 한명철은 주체사상으로 민족의 존엄을 누리며 떨치고 인류자주위업의 승리를 이룩하시려는것은 김정일장군님의 변함없는 확신이고 의지이다, 21세기는 세계가 공인하고있는것처럼 장군님의 명도따라 자주의 리념이 개화하는 주체의 시대로 더욱 빛나게 될것이라고 격동된 심정을 토로하였다.

본사기자

장군님과 CNC (19)

오늘도 여전히

그이는 위대한 《학생》이시었다. 조국을 이끌어 쉬임없이 미래를 창조하시지만 그이는 어제도 오늘도 여전히 평범한 학생으로서 현실과 인민앞에 서게 시었다. 만백제혁입기운동으로 교정들을 들끓게 하시던 10대, 20대의 청춘시절보다 더 방대한 폭으로, 더 깊이있게 파고들어 가시면서 그이께서는 학습에 열중 하시었다.

침략자들이 무서워하는 조선의 최첨단 돌파전의 승리에는 바로 이 위대한 노력이 놓여있었다.

집무실에서 물론 달리는 야전차와 현지지도의 길에서 그이께서 쉬임없이 풀어나가시는 속제에는 끝이 없었으며 매일에 제기하는 질문도 끝을 몰랐다. 2010년 4월 12일이었다.

봄날치고는 추운 날씨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타신 승용차가 유서깊은 통산산기슭을 따라 달리고있었다.

추억도 깊은 모교의 길이었다. 어느 학생들과 다름없는 평범한 교복차림으로 통산산에 오르시던 해초는 그 아침도 눈앞에 삼삼하였고 우리 조국의 만만년력사의 폐지들을 번치시며 시간가는 줄 모르시던 독학의 나날들, 사주의경제문제에 대한 열정넘친 토론으로 홀려가던 잊지 못할 강의시간들이 영화화처럼 흘러갔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타신 승용차는 벌써 전차도서판 앞에서 멈추어섰다. 언제나 오고싶었던 정든 모교였다. 이제는 그 정든 모교가 전차도서판으로 되었다.

어비수령님과 향일의 녀성영웅 김정숙어머님의 성스러운 발자취가 스며있는 곳, 우리 나라에서 처음으로 인민의 대학으로 일떠선 김일성종합대학의 첫 교실들이 후대들에게 물려줄 영원한 지식의 보물고로 된것이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홀에 들어서시자 어느 벽을 다 채우는 침직한 글자들이 한눈에 안겨왔다.

《자기 땅에 발을 붙이고 눈을 세계를 보라!》

승강한 정신과 풍부한 지식을 겸비한 선군혁명의 믿음직한 길잡이가 되라! 분발하고 또 분발하여 위대한 당, 김일성조선을 세계가 우러러보게 하라!

2009. 12. 17 김 정 일

경애하는 그이께서 김일성종합대학 전차도서판의 준공을 축하하여 몸소 써주셨던 활발한 필체 그대로였다.

장군님께서는 현판들로부터 시작하여 눈부시게 꾸러진 전차도서판의 땅들을 하나하나 감회깊이 돌이켜보시었다. 말그대로 정보화된 도서판이었다.

열람실에 앉아 방대한 지식의 문을 열고 들어가는 학생들의 모습은 참으로 기특하였다.

그이께서는 승강기까지 타고 오르내리시며 후대들의 행복한 모습들을 보고 또 보시었다.

전차도서판 앞에서 나서는 강령적지침들을 하나하나 언거주시고 각을 나누시는데 하늘에서는 때없이 소나기가 쏟아져내리고있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쏟아지는 비에도 아랑곳없이 2호교사로 향하시었다. 2호교사는 덩치가 커서인지 별로 추워 보였다.

하지만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날이 저물도록 오랜 시간을 여기에서 보내시었다.

대학에서 정성껏 꾸러놓은 과학전시관을 돌아보고나신 그이께서는 교원, 연구자들이 생각했던 과학기술적확장들을 청취하시었다.

넙다란 방의 3개 벽을 채우는 착상도해들이 그이앞에 펼쳐져있었다. 그이께서는 어느 의자를 놓고 앉으시었다. 단단히 파고들어갈 자취들이 있었기였다.

호리호리한 교원이 지시봉을 들고 도해판앞에 나섰다. 설명이 시작되었다. 하나의 도해판을 설명하는데만도 굉장한 시간이 들었다.

《학생》이시라

몇개의 도해판을 청취하고나면 집중도가 떨어질수 있는 방대한 과학기술적내용들이었다. 이제는 마지막도해판으로 넘어갔다. 그 마지막도해판에 대한 설명이 끝나자 수행성원들은 긴 숨이 나가기까지 하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너무도 무리하신다는 생각으로 하여 불안하였는데 드디어 끝나게 된것이었다.

그런데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다시 의자를 뒀어 둘러앉으시는것이였다. 처음부터 설명을 다시 청취하시려는것이였다.

일군들은 놀라움을 금할수 없었다. 하지만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여전히 집중된 표정으로 편이여 질문하시었다.

원리가 무엇인가? 물리를 어떻게 하는가? 공정은 어떻게 편걸렸는가? 시작과 종결이 맞아떨어지는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하나 파고들어 가시는 그 모습에는 끝이 없었다.

작성을 내놓은 교원, 연구사들도 대답하기 벅한 질문들이었다. 날이 점점 어두워지고있었지만 도해설명은 계속되고있었다.

새로운 소금원료자원연구, 폐쇄물처리원화방도, 역회가스로 각종 화학재료생산방안, 농업생태고리형성에 의한 생물생산량제고방안, 물자원장기변동에측과 물관리대책...

그이께서는 설명을 끝까지 청취하시면서라도 작성내용 및 특성들과 경제적효과성, 대책안들이 수차적으로 띄어져있는 도해의 내용들이 현실성이 있는가 하는것을 깊이있게 분석해보시었다.

이렇게 많은 시간을 보내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드디어 자리에서 일어사시였다. 그리고 몇몇 도해판들을 하나하나

적으면서말씀하시는것이였다. 《12개 판에서 이 4개 판들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것들은 당장 도입할수 있는것들입니다. 한번 해보시오. 나는 김일성종합대학을 믿습니다.》

이렇게 뜨거운 고무의 말씀을 주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현판홀에 나서시었을 때였다.

박사메달들을 가슴에 번쩍이며 교원, 연구사들이 장군님께 달려와 예뻐하는것이였다.

《장군님, 정말 밧고싶었습니다!》 저저마다 아귀하는 눈물에 겨운 목소리들이었다.

교원, 연구사들속에 계시는 그이께서는 얼마나 평온해하시는지 만사름을 다 잊으신듯 하였다.

그들가운데는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대학시절에 정든 스승들도 있었다. 참으로 뜻깊은 상봉이였다.

그이께서는 한없이 정다운 모습으로 그들을 팔팔에 끼시고 기념사진도 찍으시었다. 스승들속에 묻히신 위대한 장군님의 모습이 만사름의 심금을 뜨겁게 울리었다.

드디어 헤어질 시간이 되었다. 위대한 장군님의 건강을 축원하며 교원, 연구사들은 뜨거운 인사를 드리고있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영광의 그 시각이 영원한 상봉의 시간으로 남아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있는 교육자들의 눈빛을 하나하나 일별해보시면서 우렁 우렁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는것이였다.

《오늘 맑은것을 배우고 갑니다. 고맙습니다.》 그의 우렁우렁한 목소리가 드넓은 교사에 메아리되어 울려갔다.

그것은 인류정지사의 그 어느 갈피에서도 찾아볼수 없는 위대한 인간의 감사의 인사였다.

사랑하는 조국앞에 언제나 배움의 자세로 서신 위대한 《학생》의 고귀한 인사말이였다.

심 장 의 고 백

그이께서는 지금 한창의 편지를 보고 계시었다. 최로에라의 남모르는 사연으로 가득찬 최첨단돌파의 길에 대한 감회깊은 추억을 뒤살피주는 편지였다.

한번도 만나본적이 없어도 새로 개발한 CNC기계를 세워놓고 뜻으로 상봉하고 싶공의 희열을 말없이 나누어온 정다운 1번수의 편지였다.

세월이 멀리 흘러간 뒤에도 후대들이 걸어 전해갈 매혹의 글줄들이 그이의 심장과 대화를 나누고있었다. 《경애하는 장군님, 안녕하십니까.》

한살도록 가슴속에 쌓이고쌓인 그리움의 마음을 담아 위대한 스승이신 경애하는 장군님께 삼가 첫 편지를 올립니다.

저는 오늘 경애하는 장군님의 크나큰 정치신신에 의하여 김일성총장상을 수여받았습니.

경애하는 장군님! 정말 고맙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조국과 민족의 앞날을 위하여 해치으신 고생김중의 단 한발자국도 대신해드리지 못한 저의 가슴에 로령영웅메달, 박사메달을 달아주시고 오늘 높은 김일성총장까지 안겨주시니 참으로 죄송스럽습니다.

어비장군님께서 저를 안겨주시는 믿음과 사랑에 비해볼 때 저는 사업성과가 너무나 부족하여 피로움을 안고있는 불효마심한 자식입니다.

산처럼 쌓인 보답의 한생만이 앞에 있는 전사로서 감히 바랄수 없는 충구한 믿음을 또다시 받아안고보니 장군님의 믿음과 사랑의 의미를 다 깨닫지 못한채 밧아안는데만 승평되는 호부자가 될가봐 걱정되고 어찌가 무거워집니다.

일찍부터 온 나라 CNC화의 높은 귀상을 안고계신 위대한 장군님의 믿음 의도를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느끼며 과학연구사업을 해온 지식인으로서 저는 우리가 긍지높이 간직할 수령봉, 장군부이란 무엇인가를 과학적전리로 깨달았습니.

지식경제시대의 높은 준위우에 우리 조국을 올려세우시기 위하여 장군님께서 얼마나 험난한 길을 걸으시였는가를 실제

하게 체첸하였기에 저는 장군님께서 CNC노래를 들으실 때마다 눈곱적시시는 깊은 심중을 소리로없이 함께 새겨안았습니.

실사 높은 과학기술지식과 명석한 경제적인안목, 오랜 실전경험과 충분한 밑천을 가진 로리한 정치가라 할지라도 결집하기 어렵고 해내기 어려운것이 나라의 CNC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그토록 어려운 시기에 이처럼 큰 사업을 결집하시고 짧은 기간안에 높은 수준에서 해내신 놀라운 사실은 100년, 200년 세월이 흘러간 뒤에 더 분명히 알수 있는 거대한 력사적공적일것입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생생히 기억하고 계시는 일이지만 CNC를 처음 시작할때 CNC라는 말조차 모르는 일군들이 태반이였습니.

그러다보니 장군님께서 더욱더 고생을 많이 하신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새로운 기술에 발들어놓기 힘들어하는 천총만중의 일군들을 품에 안아 이끄시며 해치오신 평도의 초기단계를 직접적으로 체험한 저는 세월이 흘러갈수록 그때의 장군님 심중을 더욱더 깊이 헤아려보게 됩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CNC화를 본격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3개의 기본단계를 설정하시니 재래식공작기계를 CNC공작기기로 바꾸는 1단계의 시범을, 유연생산체계에 의한 자동화된 생산공정을 확립하는 2단계의 시범을, 웅근 하나의 생산공정을 컴퓨터통합생산체제로 확립시키는 3단계의 시범을 창조하시고 그것을 일반화하여 온 나라의 CNC화를 실현한 실재한 사실들과 고귀한 경험들은 후손한테도 길이 전할 귀중한 재보물을 입니.

한품두품을 세여가는 적은 자금을 모아 쥐시고 오늘과 같은 거대한 력사적승리를 이룩해내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평도의 위대함을 놀라움을 금할수 없었고 그렇게 흥분된 마음으로 장군님을 생각하며 잠 못 든 밤도 많았습니.

하기에 《침탄을 돌파하라》는 정론이 당보에 실리고 《돌파하라 최첨단들》 노래가 나와 우리 인민은 물론 온 세대가

조선의 CNC에 대하여 말하고있는 오늘의 격동적인 시대를 보면서 저는 장군님께 거듭 존경을 드리고싶었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 공작기계전문가들과 만나는 파장에도 느꼈고 CNC와 관련한 문헌들을 연구하면서도 안겼지만 아직 어느 나라에서도 CNC라는 말이 기계공업의 한계점을 벗어나 나라의 전반발전에 거대한 정치적작용을 하고있는 메가 없습니.

오늘의 승리가 장군님을 따라나선 일군들의 공로로 이룩된것도 아니고 시대를 타고 이루어낸 지정학적결과도 아니며 황금소나기에서 떨어진 행동도 아니라는것을 세상사람들에게 말하고싶었습니다.

우리 일군들과 지식인들이 죄송스럽게 그치지않고 그것은 오직 장군님 혼자서 해내신 일이라는것을 력사에 기록해두고 싶습니.

최근에 저는 위대한 장군님의 다음단계 구상에서 CNC를 전문으로 하는 우리들도 상상할수 없는 무궁한 깊이를 알고 다시 한번 놀랐습니.

이미 CNC화된 공장들에서 CNC화를 더 높은 단계에서 완결무결하게 공고히 하는것이 다음단계의 사업으로 된다고 하신 말씀, 기계가공의 2대요소인 CNC공작기계를 대량생산하는것과 함께 공구문제를 결정적으로 해결해야 하며 그러자면 운산공구공장을 세계 1등급의 공구생산기지로 꾸려야 한다고 하신 그제 놀랐기만 한 장군님정치의 신비함에 충격이 컸습니.

강성대국으로 가는 지름길을 열어나가는 경애하는 장군님을 혁명의 전투에서 모신 우리 앞길에 눈부시고 찬란한 미래가 다가오고있음을 저는 심장으로 감각하며 눈앞에 보고있습니.

저는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걸음걸을 손때묻혀 키워주신 일군으로서 장군님께서 구상하시는데로 우리 나라의 CNC기계공업수준을 세계 1위의 높이에 단연 올려세우기 위한 길에서 언제나 최전연병사의 자세로 살며 싸우겠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안겨 주신 김일성총장을 가슴에 모신 수령님의 전사단체, 장군님께서 내세워주신 로령영웅이라는 부름그대로, 장군님께서 달아주신 박사메달의 무게그대로 지식경제시대의 최첨단에서 세계와 도전하면서 쉬임없이 내달리겠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초인간적인 강행군을 따르는 길에서 철이 들고있는 우리들이 제수실을 못한다면 세상에 그보다 더

CNC 기계 바우에서

2010년 12월 21일이였다. 이날은 반만년의 유구한 력사를 가진 조선에 잊지 못할 승리의 추억을 진하게 새겨준 날이였다.

한해가 저물어가는 시각까지 현지지도의 길을 걸으시는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드디어 현대적인 CNC공작기계공장으로 기계개건된 최첨단기계종합공장을 찾으신것이였다.

공장건물이 보이는 곳에서부터 장군님께서 타신 승용차는 속도를 늦추었다.

사람이 걸어가는 속도와 거의 대등할 정도로 승용차가 미끄러져오고있었다. 주체조선의 새로운 높이를 증명하는 이 승리의 걸작품을 읽게는 보지 않으시려는 뜨거운 마음하신듯 그이께서는 차의 속도를 늦추도록 하시었다.

회한한 자태였다. 세상사람들이 리상으로 간주하는 특색형의 건축물이 무엇이 솟아있었다.

특색형, 불리부기간 해도 지식경제시대의 향취가 그윽하게 풍겨오는 말이었다. 인류가 리상하는 특색부계와 CNC공작기계공장의 결합, 솟고 눈부신 성공이였다.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공작기계공장을 보면 대부분이고 고성능CNC공작기계를 만들어내는 공장은 얼마 되지 않는다. 고성능CNC공작기계를 만들어낸다고 하여도 정밀기계제품생산에 리상적인 특색환경을 갖춘 공장은 거의 없습니.

실사 고성능CNC에 특색형건축물이 안받침되었고 하여도 작은 향, 작은 면적, 이것이 앞선 수준에 대한 표상의 전부였다.

한 배운방력이 있을수 없다는것이 자신의 인성관으로 되어야 한다는것을 명심하고 일하셨습니.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최첨단돌파의 1번수로 내세워주신 련하기계관리국의 전진의 속도이자 나라의 최첨단돌파속도라는것을 자각하고 앞선 수준을 뛰어넘는 《련하기계》들을 계속 개발해내셨습니.

특히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공구분야에 지퍼주신 불꽃이 빠른 시간에 거대한 불길로 타올라 열매를 맺을수 있도록 운산공구공장을 세계적인 공구생산기지로 전변시키는데서 부파된 임무를 무조건 수행해내셨습니.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최첨공작기계종합공장을 현지지도하시면서 주신 가르침을 높이 받들고 현대화공사를 올해안에 끝내고 CNC공작기계생산용어미기계를 세계최고급수준에서 만들어내셨습니.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그처럼 바라시는 《1번째 CNC공작기계 만세!》가 울려퍼질 승리의 그날을 향하여 뒤돌아보지 않고 오직 앞으로만 곧바로 내달리셨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 뵈고싶습니. 우리가 만든 《련하기계》를 <구원천구>라고 불러주시는 장군님의 정다운 음성이 밤이나 낮이나 귀전에서 조용히 울리고있습니.

경애하는 장군님을 만나뵈운 영광의 그날을 기다리며 가슴설레이는 마음은 장군님의 야전차를 따라 끝없이 달리고있습니.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멀고 험한 현지지도의 길에서 매일, 매 순간 건강강시를 간절히 바라고 또 바랍니다.

경애하는 장군님, 부디 안녕히 계시시오. ...》

편지를 읽고나신 그이께서는 깊은 사색속에 계시었다. 인제들이란 결코 두뇌로만 결정되는것이 아니였다.

만 결정되지 보살펴주는 품이 인제들을 만들고 그 품을 따르는 신념과 의리가 인제를 만들어 당이 준 목표를 향해여 세트로 지향해오르는 병사와 같은 완강한 의지력이 시대의 선구자들을 만들어 주는것이였다.

그렇게 걸음걸을 키워주신 지식경제시대의 미더운 1번수와 뜨겁게 상봉하실 시간이 눈앞에 다가오고있었다.

그이의 귀견에는 세계적인 CNC공장으로 솟아오르는 최현의 동음이 장엄하게 들려오고있었다.

CNC 기계 바우에서

그러나 이제는 앞선 수준에 대한 그 표상이 달라지게 되었다. 우리의 기술로 만든 표준형, 고성능CNC공작기계가 방대한 면적의 특색형건축물에 들어찬 회한한 풍경은 지구의 그 어디에도 찾아볼수 없었던것이다.

장군님께서는 차에서 내리시는 길로 걸음을 계속하시었다. 시원한 유리문을 따라 통합생산체계에 들어서시였지만 유리창앞으로 보이는 드넓은 현상이 벌써 마음을 흥분시키것을 금할수 없었다.

《궁전궐구만, 멋쟁이요, 희한하오!》 장군님의 희열에 넘친 목소리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벌써 현장에 들어서시었다.

말그대로 CNC바다였다. 현대적인 산업미가 넘치는 드넓은 현장이였다.

방대한 면적안에 4축, 5축, 6축, 7축, 8축, 9축의 CNC공작기계가 사열을 받들듯이 일망무제하게 들어서있었다.

조선이 세계의 앞자리를 차지하려 한다는것을 실신감으로 보고 느낄수 있는 회한한 현실이였다.

4축, 5축은 물론 지식상품으로서 가장 높은 단계에 이른 8축, 9축 또는 그 이상의 CNC기계가 수요에 따라 다품종으로 쏟아지게 된다.

소품종 다량생산으로부터 다품종생산에 넘어가려는 바로 트라스트시대에 걸맞는 생산공정이란 쓰로 이룬것이다.

하늘의 별을 똑똑 따놓은것 같은 최첨단 기계공업의 성공작을 보시는 장군님의 마음속에 희열의 파도가 끓어넘어졌다. 장군님께서는 전통차에 오르신것이였다.

전통차를 타고 돌아보셔야 할 방대한

면적이었다. 전통차가 움직이기 시작하였다. 마치도 무한대한 CNC바다우에 떠가는 한척의 배와도 같았다.

지식경제시대로 맞을 올린 혁명의 함선을 타시고 예지로 빛나는 눈빛으로 CNC바다를 한눈에 굽어보시는 장군님의 승엄한 모습은 이 세상에 단 한분이신 전설적인 최첨단돌파자의 위대한 모습이였다.

《장군님, 여기가 CNC기계조립장입니다. 여기서는 년간 수천대의 CNC공작기계를 조립할수 있습니다.》

이 시각 그이께서는 공장일군의 이야기도 파도소리처럼 시원하게 들리였다. 끝내없이 펼쳐진 지식의 저수지우에서 장군님과 일군들사이 대화와 오고가고있었다.

《저것은 무엇일니까?》 《기계조립에 필요한 부분품을 보관했다가 조립할 때 쓰는 립체창고입니다.》

전통차의 향연으로 《련하기계》라고 쓴 CNC기계가 울려가고있었다. 《이쪽에서는 CNC선반들을 조립하고 있고 저쪽에서는 가공중심반들을 조립하고 있습니다. 조립공정별로 놓았습니다.》

미끄러지듯 가고있는 전통차에서 지배인의 이야기 가 계속되고있었다. 《장군님, 이제는 무서운것이 없습니.

그 어떤 기계든지 다 만들수 있습니다.》 전통차앞으로 《가공장》이라고 쓴 표식들이 나타나기도 하고 각이한 모양을 가진 CNC기계가 엇갈려 지나가기도 하였다.

기대들에서 번쩍거리는 불빛들, 프로그람을 짜넣은 화면들에서 비치는 빛으로 하여 아름다운 광선조형이 이루어지고있었다.

기기에다 천정에서 내리비치는 자연광선의 효과와 고급한 바닥칠감의 효과로 하여 현장의 풍경은 이름 못할 산업미를 펼쳐지고있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장군님께서 리상하신 특색형의 CNC공장이었다. 최첨단의 신선한 향취로 가득찬 현장에서 폭력적건축물이라는 말을 자연스럽기 하고 있는것이 얼마나 가슴벅찬 일인가.

방대한 현장을 자연에너지로 덮히는 회한한 현실이였다.

세계적으로 가장 앞선 특색건축이란 어떤것인가. 에네르키걸약형이라고 부르는 건축물이 로동생활에 주는 결과가 어떠한가를 여기에서 눈으로 보고 느낄수 있는 것이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설계도면그대로 된 현장을 다시 둘러보시었다.

천정과 벽체, 천정장들을 단열체로 하여 건물외의 보온효과를 높이고 지하수를 리용하여 현장을 덮히는 새로운 풍경이였다.

공정구면에 우물을 파고 지하수를 끌어올려 인는 결과는 대단하였었다. 땅 밑에서 호를 때는 10~15°C이지만 그것을 열압축하던 40~50°C의 물로 전환한다는 과학적원리에 근거하고있었다.

여름에는 반대로 지하수로 열을 뽑아주어 현장의 평풍을 보강하게 되니 얼마나 좋은 일인가.

총건 20년의 1에 해당하는 에네르기로 로동에 편리하고 조립정밀도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온도를 보강할수 있는것이였다.

이렇게 절약되는 전기도 대단하거나 와 이런 생산환경이 로동자들의 건강과 로동생활에 주는 결과는 더 중요하겠이다. 밖에서는 눈눈이 평평 내리여도 안에서는 와이샤쯔만 입고도 일할수 있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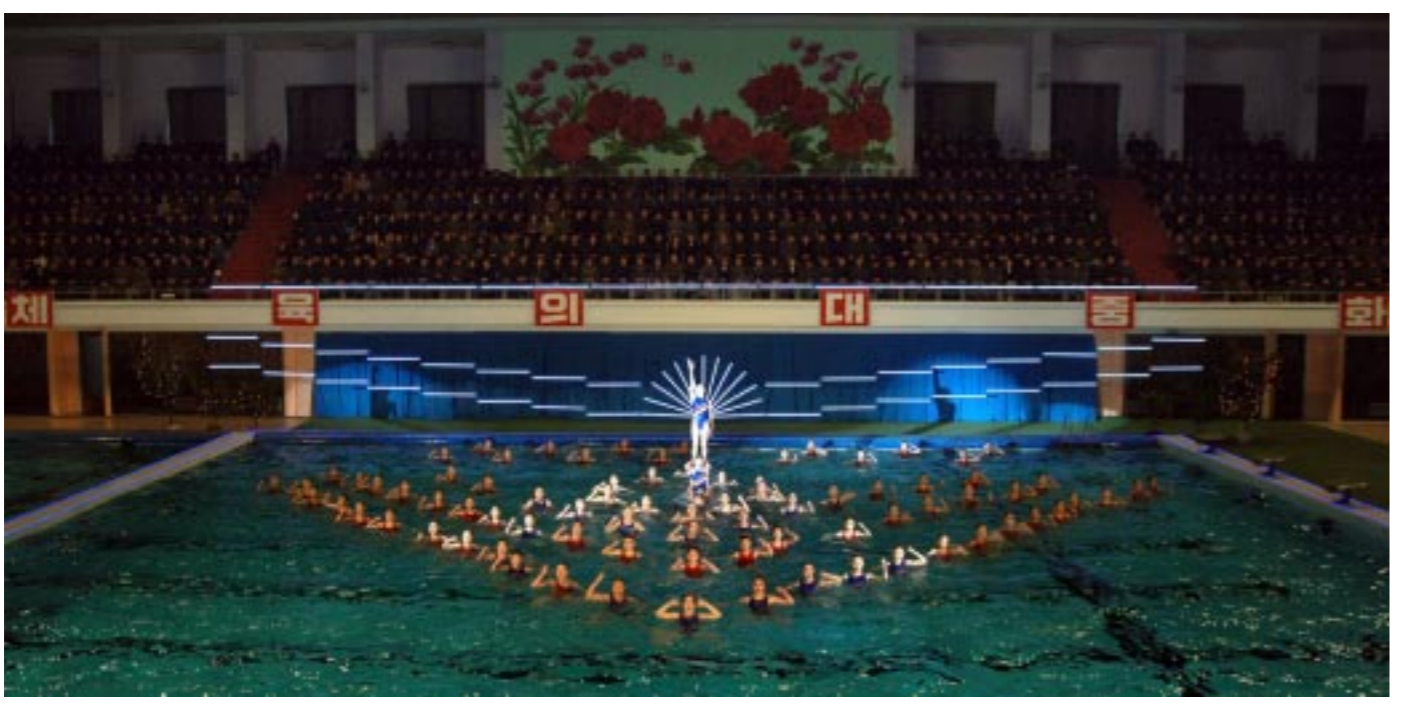
경계실리적 측면에서도 성공적이며 문명의 측면에서도 성공적이였다.

벌써 오메전에 이른 환경에 대한 착상을 주시고 이끌어오신 보람이 이렇게도 훌륭한 결과를 낳은것이 마음 흐뭇하시였다.

《멋잇고! 성공적이요!》 성공의 절정에 오른것만도 창조자의 심장속에서 러져나온 크나큰 희열의 분출이였다.

조국의 미래를 내다보시며 환히 웃으시는 그 미소는 강성대국의 창창한 앞날을 밝게 비치는 CNC바다의 해들이였다.

(다음호에 계속)



【평양 3월 24일발 조선중앙통신】수중체조무용모범출연이 24일 창평원에서 진행되었다. 당과 국가책임일군들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상, 중앙기관 일군들이 모범출연을 관람하였다. 출연자들은 2인수중체조무용 《장군님 모신 자랑노래부르자》, 6인수중체조무용 《공적전이다》, 《모란밭길리리야》, 1인수중체조무용 《여름》, 집체수중체조무용 《당을 노래하노라》, 《혁명을 위하여》, 《발발입니다 해빛입니다》, 《조선은 결심하면 한다》 등의 다채로운 종목들을 펼치였다. 특색있는 수중체조무용모범출연에도 뵈고싶던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 자기들이

투철한 수령결사옹위 정신을 따라 댈 워

철산군 선주리당위원회에서

철산군 선주리당위원회에서는 당원들과 농장원들속에서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께서 보여주시 투철한 수령결사옹위정신을 적극 따라배우도록 하기 위한 사상교양사업에 계속 큰 힘을 쏟고있다. 리당위원회에서는 당세포와 근로단체조직들에서 정치사업 계획을 주별, 월별로 구체적으로 세우고 이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해나가기로 적극 떠밀어주고있다. 그리고 일군들이 김정숙동지의 혁명업적을 수훈한 도승들과 귀감자료들을 깊이 학습하고 농장원들에게 해설선전하도록 하고있다. 얼마전에도 리당위원회의 한 일군은 협동농장의 어느 한 작

업반에 나가 백두의 녀장군 김정숙동지께서 한말의 위엄을 무릅쓰시고 적들을 유인하신 홍기해전투이야기, 위기일발의 순간에 사령관동지를 막아나서시며 적들에게 명종란을 안기신 대사하시기전투이야기를 실감있게 들려주었다. 그의 이야기는 사람들의 심장에 불을 달아주었다. 지금 이곳 당원들과 농장원들은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의 투철한 수령결사옹위정신을 적극 따라배워 경애하는 장군님의 선군혁명평도를 실현전진파로 더 잘 만들어갈 불타는 맹세를 다지면서 당면한 영농전투에서 혁신의 불바람을 세차게 일으켜나가고있다. 로동동원원 방 대 삼

인민소비품생산의 현대화, 과학화를 계속 힘있게 밀고나가야 한다.

보통수준이 아니라 최첨단수준에서

선형식료공장을 돌아보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식료 가공공업 부문에서 주체를 든든히 세워 우리 인민들의 구미에 맞는 여러 가지 식료품들을 값싸고 먹거리 편리하게 만들도록 하여야 하겠다.》

얼마전 우리는 당의 크나큰 은속에 현대적으로 꾸러진 선형식료공장을 찾았다. 생산공정의 CNC화와 무공해를 실현한 공장의 생산현장은 공기부터 달랐다.

산뜻한 위생복을 갈아입고 개건된 생산진로에 들어서고 한쪽의 그림자도 아랑곳 없이 정갈한 일터가 안겨들었다.

바로 여기 지난해 12월 경에하는 장군님께서 다녀가신 영광의 일터, 새 세기 맛이 나는 현대화된 일터였다.

건축물의 내용과 형식도 멋있었지만 현대화된 생산공정은 더 놀라웠다.

완전자동생산공정 하나만 놓고 보아도 그렇다. 포장용기들이

호흡선을 타고 완전밀폐된 투입공으로 들어서서 주입기가 빛났고 온 유로를 내뿜었다.

언제 소독처리된 그 많은 포장용기들에 탄산음료를 주입하는 지미치 분간할수가 없었다. 마치 시계의 치차들이 서로 맞물려 돌아가듯 완성된 제품들은 호흡선을 타고 물결처럼 흘러갔다.

기대소리가 정답게 울리는 이 흥겨운 일터에서는 종합조종실에 앉았있는 조종공들만이 눈에 드릴뿐이었다.

크고작은 무수한 탱크들에서 빠져나온 차체를 기다리는 갖가지 유체로 조종공이 조종하는데 따라 선택되고 그로써 훌륭한 제품으로 완성된다고 한다. 현대화된 종합조종실에서 위생복을 입은 두명의 로동자들이 탄산음료생산공정과 새로 꾸러진 모든 생산공정전반을 지휘하고 있다니 얼마나 좋은 일인가.

공장의 현대화수준은 그야말로 보폭의 수준이 아니라 최첨단수준이라고 일컬을만 하였다. 모든것이 현대화된 일터에서 일하는 조종공들의 명랑한

얼굴을 정경도록 바라보며 지배인의 이야기를 듣는 우리의 가슴은 뭉클해져들었다.

경에하는 장군님께서 지켜주신 CNC화의 불결이 공장에 도라올라 이렇듯 현대화의 동음높은 멋있는 생산공정이 태어나고 있었다. 그는 공장을 돌아다니며 그리고 만주해하시던 아버지장군의 환하신 영상을 오늘도 잊을수 없다고 격정에 넘쳐 말하였다. 우리 인민을 더 잘살게 하여주시려 공장에 불붙는 자속을 남기신 경에하는 장군님의 거룩한 발자취를 따라 우리는 현대화된 일터의 한켠에 자리잡은 상층에 둘러보았다.

상층은 수많은 사람들로 흥성이고 있었다. 매대마다에 꼭 들 어찬 우리 제품, 선홍이라는 이름을 단 빵, 파자, 사탕, 국수 그리고 각종 정량용료들은 보기만 해도 호호하여 절로 탄성이 나왔다.

이 제품들이 다 우리의것인가. 이 공장 식료품의 질이 최고이다!

스스로없이 울려나오는 인민

들의 목소리를 들으며 우리는 여러 매대들을 돌아보았다. 제 품마다 모양과 크기, 색깔과 포장도 다 달랐다. 그 맛도 독특하다고 한다.

조지 않은 공장에서 어떻게 되어 질 좋은 제품들을 많이 생산하고있는가를 일군에게 물었다. 그는 당에서 하라는데로 하였을뿐이라고 소박하게 대답하는것이였다.

일군은 일생산 및 재정총화를 실속있게 하여 생산자대중을 불러일으키고 매달 제품품질회를 정상적으로 하여 가시수를 늘린 데도 비결이 있다고 하면서 매 대에 놓여진 상품들 보여주시는 것이였다. 그 상품은 한달전에 있었던 제품품질회에 출품된 것들이였다. 일군은 이렇게 말하였다. 고고니 그 제품은 최근에 어떤 이들이 즐겨찾는 파자였는데 최신과학기술에 기초하여 만든 것이였다. 그 제품이 아니었다. 매대에 있는 모든 제품들은 공장의 로동자, 기술자들이 인민에 대한 헌신적봉투성을 지니고 창조적열정을 바쳐 마

련한것이였다.

공장에서는 대학졸업생들이 많은 자체의 특성에 맞게 하나의 새 제품개발계획을 내세워도 세계적인 식료공업발전에 비추어 식료공업의 최첨단을 돌파하기 위한 혁신적인 목표를 제시한다는것이였다.

일군의 이야기를 들으며 우리는 생각하였다. 식료공업의 최첨단을 돌파하면 생산의 직접적담당자인 대중의 창조적열정을 발동하고 그들의 기술기능수준을 더욱 높여야 한다는것을 다시 한번 절감하게 되었다.

자체의 힘으로 현대화된 생산공정을 보란듯이 일터에는 여러 생산자들은 식료공업을 더욱 발전시키는데 대한 승고한 뜻을 받들고 새로운 목표를 향해 치달아오르고있었다.

공장을 나서서 우리의 마음을 기웠다. 현대화의 자랑은 공장을 돌아보면서 우리는 가까운 앞날에 최첨단높이에 올라설 우리의 식료공업의 밝은 전망을 보았다.

더욱더 현대화되는 지방공업

공동사설의 전두적공업을 받고 인민소비품생산의 현대화, 과학화를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기 위한 투쟁은 각지 지방공업 공장들에서도 활발히 벌어지고 있다.

전국적으로 많은 지방공업 공장들의 현대화가 높은 수준에서 실현되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지방공업을 발전시키는데서 중요한 것은 지방산업공정들의 생산기술적수준을 튼튼히 꾸리는것입니다.》

창성군의 모범을 따라 리원군, 맹산군, 의주군, 구성진, 연산군을 비롯한 여러 시, 군들에서도 자기 고장의 특성에 맞는 지표를 개발하고 그에 맞게 생산공정의 현대화, 과학화를 힘있게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활발히 벌려 성과를 거두고있다.

리원장공장, 맹산식료공장, 의주식료공장, 구성진식료공장에서는 장생산공정과 당과류생산공정의 현대화를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여 주민들의 식생활향상에 크게 기여하고있다.

생산공정의 현대화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의 불길이 새차게 타번지고있는 속에 전국적으로

여기에 과학기술력량을 총집중하고있다.

군의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자기 고장에 풍부한 원료원천인 나무, 대를 비롯한 산열매로 여러가지 음료를 특색있게 만들어 음료 생산에서 폐원을 철저히 줄이고 생산공정의 현대화를 빠른 속도로 다그치고있다.

창성군의 모범을 따라 리원군, 맹산군, 의주군, 구성진, 연산군을 비롯한 여러 시, 군들에서도 자기 고장의 특성에 맞는 지표를 개발하고 그에 맞게 생산공정의 현대화, 과학화를 힘있게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활발히 벌려 성과를 거두고있다.

리원장공장, 맹산식료공장, 의주식료공장, 구성진식료공장에서는 장생산공정과 당과류생산공정의 현대화를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여 주민들의 식생활향상에 크게 기여하고있다.

생산공정의 현대화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의 불길이 새차게 타번지고있는 속에 전국적으로

기초식품공장, 종이공장, 비누 생산기지들이 기본적으로 현대화되어 인민생활에 실질적 필요한 소비품생산이 많이 늘었다.

현대화된 지방공업 공장들이 늘어날수록 소비자의 가지수도 다양해지고 그 질이 훨씬 좋아져 인민들속에서 호평을 받고 있다.

송도원종합식료공장, 장자산 종합식료공장을 비롯한 각도의 종합식료공장들에서 생산하는 당과류들과 희평시의 지방공업 공장들에서 생산하는 딸메비누와 학용품들, 맹산일용용품생산 협동조합에서 생산하는 각종 목제품 등은 인민들속에서 수요가 높은 제품으로 되고있다.

각지 지방공업공장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은 인민생활향상에 참담계 이미지할 불라는 열의를 안고 최첨단을 돌파하기 위한 투쟁을 즐기며 벌려나가고 있다.

본사기자 리철욱

안주장 공장 에서

얼마전 안주장공장을 찾았던 우리는 올해공동사설의 전두적 파업을 심장마다에 새겨안고 마음을 멎게 하는 공장, 인민들이 더욱더 높은 공장으로 꾸러지는 일군들과 기술자, 로동자들의 불같은 열의를 가슴뜨겁게 느낄수 있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정보산업시대의 요구에 맞게 공업구조도 개선하고 지방공업도 현대화하여야 합니다.》

구수한 장병새가 풍겨오는 작정업반을 거쳐 기쁨작업반을 돌아온 우리는 정말 놀라움을 금할수 없었다. 그야말로 현대화된 공장, 때 벗어난 현대산업공장이었다.

위생문화적으로 잘 꾸러진 생산현장과 목욕탕도 우리의 감탄을 자아내지만 제일 인상깊은것은 공장의 현대화수준이 높았다는것이다. 특색있게 꾸러놓은 장생산공정은 원로투입으로부터 완성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공정을 컴퓨터로 조종하게 되어있었다. 공장에서 새로 꾸러진 작업반에 앉은 하나하나의 설비들도 현대화된것들이었다.

공장에서 이러한 이러한 성과 속에는 일군들과 기술자, 로동자들의 노력과 함께 전자공업성 전자자동화설계연구소 연구사들의 고심어린 탐구와 사임없는 방조도 깃들어있었다. 현장에서

나와 공장사람들과 마음도 술겉도 하나로 잇고 지혜와 정열을 감고려니와 마구잡이로 마구잡이로 이어지속한 한 내인이 어디까지 가는가고 나에게 물었다. 신의 기와정들이 빙 둘러앉은 건물은 2층에 햇빛받은 대학강의실이 있었다.

방구 하루일을 끝마친 로동자들이 출저어 대학강의실에 모여 들었다. 그 넓은 강의실에는 여러

《혹시 자그마한 생산협동조합에 부부대학생들이 있다는 소문을 들어보았습니까?》

그러면서 그는 신의주초중생협동조합에 대한 자랑을 하였다. 그리고는 그

《자그마한 생산협동조합에 이력 높은 대학강의실이 있다는 것도 놀라웠지만 이 강의실에서 로동자들이 기술혁신의 명수들로 자라나고있는 대학강의실의 말은 더욱더 나를 감동시켰다. 로동자들과 함께 열심히 강의를 받고있던 관리위원장은 휴식시간에 여러명의 부부대학생들을 차례로 소개하면서 저들의 모습을 볼 때면 우리 조합의 배움이 환히 보이는것 같다고 금지에 넘쳐 이야기하였다.

얼마전 신의주로 향한 열차 안에서였다. 열차가 얼마쯤 달렸는데 앞차리에 마주앉은 나 이이속한 한 내인이 어디까지 가는가고 나에게 물었다. 신의 기와정들이 빙 둘러앉은 건물은 2층에 햇빛받은 대학강의실이 있었다.

방구 하루일을 끝마친 로동자들이 출저어 대학강의실에 모여 들었다. 그 넓은 강의실에는 여러

《혹시 자그마한 생산협동조합에 부부대학생들이 있다는 소문을 들어보았습니까?》

그러면서 그는 신의주초중생협동조합에 대한 자랑을 하였다. 그리고는 그

《자그마한 생산협동조합에 이력 높은 대학강의실이 있다는 것도 놀라웠지만 이 강의실에서 로동자들이 기술혁신의 명수들로 자라나고있는 대학강의실의 말은 더욱더 나를 감동시켰다. 로동자들과 함께 열심히 강의를 받고있던 관리위원장은 휴식시간에 여러명의 부부대학생들을 차례로 소개하면서 저들의 모습을 볼 때면 우리 조합의 배움이 환히 보이는것 같다고 금지에 넘쳐 이야기하였다.

폭 반년만에 이곳 생산협동 조합을 다시 찾은 나는 깜짝 놀랐다. 수수한 단층건물들은 간대없이 사라졌던것이다.

화각지붕을 건듯 처든 조선식 기와정들이 빙 둘러앉은 건물은 2층에 햇빛받은 대학강의실이 있었다.

방구 하루일을 끝마친 로동자들이 출저어 대학강의실에 모여 들었다. 그 넓은 강의실에는 여러

《혹시 자그마한 생산협동조합에 부부대학생들이 있다는 소문을 들어보았습니까?》

그러면서 그는 신의주초중생협동조합에 대한 자랑을 하였다. 그리고는 그

《자그마한 생산협동조합에 이력 높은 대학강의실이 있다는 것도 놀라웠지만 이 강의실에서 로동자들이 기술혁신의 명수들로 자라나고있는 대학강의실의 말은 더욱더 나를 감동시켰다. 로동자들과 함께 열심히 강의를 받고있던 관리위원장은 휴식시간에 여러명의 부부대학생들을 차례로 소개하면서 저들의 모습을 볼 때면 우리 조합의 배움이 환히 보이는것 같다고 금지에 넘쳐 이야기하였다.

지방의 작은 생산협동조합이라고 최첨단과전에서 결코 페로 될수 없다. 누구든 최신과학기술을 모르면 시대의 밖으로 자라 되고 기술의 노예가 된다. 우리도 최첨단과전에서 선봉에서 서서 소치미쳐 내달라자.

이런 남다른 각오를 가지고 이곳 일군들은 생활협회의 동음을 높이 울려가던 5년전에 한꺼번에 60여명의 로동자들을 신의주공업대학에 입학시켰다.

조합에서는 두해가 지난 후에 또다시 대학생들을 두배로 늘였다. 그들중에는 제대군인부부대학생들도, 가정부녀대학생들도 수두룩하였다. 일터에서 배우는 그들의 경지는 자못 크고 자랑스러웠다. 그렇다. 부부대학생! 이것은 단순한 부부이다.

이 부부속에 과학기술경쟁에서 남들을 앞도했다는 강한 민족적자존심과 자신만만한 배짱이 력력히 비껴있다. 바로 여기에 남들이 걸어온 단계를 단숨에 뛰어넘어 세계에 추격자로서 서는 선진국인 인간의 참모습이 빛나고있는것이다.

박유정

지방의 작은 생산협동조합이라고 최첨단과전에서 결코 페로 될수 없다. 누구든 최신과학기술을 모르면 시대의 밖으로 자라 되고 기술의 노예가 된다. 우리도 최첨단과전에서 선봉에서 서서 소치미쳐 내달라자.

이런 남다른 각오를 가지고 이곳 일군들은 생활협회의 동음을 높이 울려가던 5년전에 한꺼번에 60여명의 로동자들을 신의주공업대학에 입학시켰다.

조합에서는 두해가 지난 후에 또다시 대학생들을 두배로 늘였다. 그들중에는 제대군인부부대학생들도, 가정부녀대학생들도 수두룩하였다. 일터에서 배우는 그들의 경지는 자못 크고 자랑스러웠다. 그렇다. 부부대학생! 이것은 단순한 부부이다.

이 부부속에 과학기술경쟁에서 남들을 앞도했다는 강한 민족적자존심과 자신만만한 배짱이 력력히 비껴있다. 바로 여기에 남들이 걸어온 단계를 단숨에 뛰어넘어 세계에 추격자로서 서는 선진국인 인간의 참모습이 빛나고있는것이다.

박유정

판리국에 공장들의 로동자, 기술자들은 대고조의 불결높이 생산공정들에 대한 기술개선을 적극 다그치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인민소비품문제를 풀자면 경영공업공정들을 현대적기술로 개건하여야 합니다.》

도당위원회 의지도에 도식 로 일용공업관리국에서는 지방공업공정들의 현대화를 적극 다그쳐 제품의 질과 생산성을 높여나가고있다.

판리국의 해당 부서들에서는 위대한 장군님의 현지지도자욱이 깃들여있는 삼지연장공장을 비롯하여 도안의 공장들의 생산공정들을 현대적으로 꾸러 놓은 목표를 내세우고 기술개건사업을 힘껏 펴밀어주고있다.

백두산들쭉가공공정에서는 음

료저장탱크를 현대적으로 건설하는것과 함께 생산공정을 컴퓨터로 조종하기 위한 사업을 적극 밀고나가고있다.

김형직군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으로 높이 발휘하여 군안의 지방공업 공장들의 생산능력을 확장하고 설비들을 갱신하기 위한 기술개건투쟁을 힘있게 벌려 많은 성과를 이룩하였다.

판리국에서는 해산기초식품공정의 발효공정에 자동조종계를 확립하기 위한 사업과 풍서종이 공장에 소형통로목재를 도입하기 위한 사업을 내밀고있다. 또한 삼지연군의 지방공업공정들을 도적인 본보기로 꾸러기 위한 사업을 비롯하여 해산군과 군들의 지방공업공정들의 기술개건사업을 적극 펴밀어주고있다.

특파기자 전철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금수산기념관을 찾아 외국순님들 경의 표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금수산기념관을 찾아 24일 바우기 유수프 이스칸다르 총서기를 단장으로 하는 인도네시아공화국 제1차 및 공보기 술세대대표단을 비롯한 외국순님들이 경의를 표시하였다.

순님들은 나라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한평생을 바치시였으며 세계사주화 위업수행과 나라살사의 천선 판계발전에서 불멸의 공헌을 하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대한 다함없는 호모의 마음안고 경에하는 수령님께 인사를 드리었다.

그들은 방문록에 글을 남기었다.

경에하는 장군님의 구상을 앞장서서 반드시 협동법의 진파 해가주인, 녀성농촌혁명가로 현생을 빛내이며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총공격전에서 말장전 사명 과 분별을 다해나갈 굳은 결의들이 표명되었다. 모임이 끝난 후 대학의 교직원, 학생들은 농업 천하의 도너가 하는 졸업생에게 꽃목걸이를 걸어주고 꽃다발을 안겨주면서 뜨겁게 환호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금수산기념관을 찾아 24일 바우기 유수프 이스칸다르 총서기를 단장으로 하는 인도네시아공화국 제1차 및 공보기 술세대대표단을 비롯한 외국순님들이 경의를 표시하였다.

순님들은 나라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한평생을 바치시였으며 세계사주화 위업수행과 나라살사의 천선 판계발전에서 불멸의 공헌을 하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대한 다함없는 호모의 마음안고 경에하는 수령님께 인사를 드리었다.

그들은 방문록에 글을 남기었다.

경에하는 장군님의 구상을 앞장서서 반드시 협동법의 진파 해가주인, 녀성농촌혁명가로 현생을 빛내이며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총공격전에서 말장전 사명 과 분별을 다해나갈 굳은 결의들이 표명되었다. 모임이 끝난 후 대학의 교직원, 학생들은 농업 천하의 도너가 하는 졸업생에게 꽃목걸이를 걸어주고 꽃다발을 안겨주면서 뜨겁게 환호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금수산기념관을 찾아 24일 바우기 유수프 이스칸다르 총서기를 단장으로 하는 인도네시아공화국 제1차 및 공보기 술세대대표단을 비롯한 외국순님들이 경의를 표시하였다.

순님들은 나라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한평생을 바치시였으며 세계사주화 위업수행과 나라살사의 천선 판계발전에서 불멸의 공헌을 하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대한 다함없는 호모의 마음안고 경에하는 수령님께 인사를 드리었다.

그들은 방문록에 글을 남기었다.

경에하는 장군님의 구상을 앞장서서 반드시 협동법의 진파 해가주인, 녀성농촌혁명가로 현생을 빛내이며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총공격전에서 말장전 사명 과 분별을 다해나갈 굳은 결의들이 표명되었다. 모임이 끝난 후 대학의 교직원, 학생들은 농업 천하의 도너가 하는 졸업생에게 꽃목걸이를 걸어주고 꽃다발을 안겨주면서 뜨겁게 환호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금수산기념관을 찾아 24일 바우기 유수프 이스칸다르 총서기를 단장으로 하는 인도네시아공화국 제1차 및 공보기 술세대대표단을 비롯한 외국순님들이 경의를 표시하였다.

순님들은 나라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한평생을 바치시였으며 세계사주화 위업수행과 나라살사의 천선 판계발전에서 불멸의 공헌을 하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대한 다함없는 호모의 마음안고 경에하는 수령님께 인사를 드리었다.

그들은 방문록에 글을 남기었다.

경에하는 장군님의 구상을 앞장서서 반드시 협동법의 진파 해가주인, 녀성농촌혁명가로 현생을 빛내이며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총공격전에서 말장전 사명 과 분별을 다해나갈 굳은 결의들이 표명되었다. 모임이 끝난 후 대학의 교직원, 학생들은 농업 천하의 도너가 하는 졸업생에게 꽃목걸이를 걸어주고 꽃다발을 안겨주면서 뜨겁게 환호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금수산기념관을 찾아 24일 바우기 유수프 이스칸다르 총서기를 단장으로 하는 인도네시아공화국 제1차 및 공보기 술세대대표단을 비롯한 외국순님들이 경의를 표시하였다.

순님들은 나라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한평생을 바치시였으며 세계사주화 위업수행과 나라살사의 천선 판계발전에서 불멸의 공헌을 하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대한 다함없는 호모의 마음안고 경에하는 수령님께 인사를 드리었다.

그들은 방문록에 글을 남기었다.

경에하는 장군님의 구상을 앞장서서 반드시 협동법의 진파 해가주인, 녀성농촌혁명가로 현생을 빛내이며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총공격전에서 말장전 사명 과 분별을 다해나갈 굳은 결의들이 표명되었다. 모임이 끝난 후 대학의 교직원, 학생들은 농업 천하의 도너가 하는 졸업생에게 꽃목걸이를 걸어주고 꽃다발을 안겨주면서 뜨겁게 환호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금수산기념관을 찾아 24일 바우기 유수프 이스칸다르 총서기를 단장으로 하는 인도네시아공화국 제1차 및 공보기 술세대대표단을 비롯한 외국순님들이 경의를 표시하였다.

순님들은 나라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한평생을 바치시였으며 세계사주화 위업수행과 나라살사의 천선 판계발전에서 불멸의 공헌을 하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대한 다함없는 호모의 마음안고 경에하는 수령님께 인사를 드리었다.

그들은 방문록에 글을 남기었다.

경에하는 장군님의 구상을 앞장서서 반드시 협동법의 진파 해가주인, 녀성농촌혁명가로 현생을 빛내이며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총공격전에서 말장전 사명 과 분별을 다해나갈 굳은 결의들이 표명되었다. 모임이 끝난 후 대학의 교직원, 학생들은 농업 천하의 도너가 하는 졸업생에게 꽃목걸이를 걸어주고 꽃다발을 안겨주면서 뜨겁게 환호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금수산기념관을 찾아 24일 바우기 유수프 이스칸다르 총서기를 단장으로 하는 인도네시아공화국 제1차 및 공보기 술세대대표단을 비롯한 외국순님들이 경의를 표시하였다.

순님들은 나라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한평생을 바치시였으며 세계사주화 위업수행과 나라살사의 천선 판계발전에서 불멸의 공헌을 하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대한 다함없는 호모의 마음안고 경에하는 수령님께 인사를 드리었다.

그들은 방문록에 글을 남기었다.

경에하는 장군님의 구상을 앞장서서 반드시 협동법의 진파 해가주인, 녀성농촌혁명가로 현생을 빛내이며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총공격전에서 말장전 사명 과 분별을 다해나갈 굳은 결의들이 표명되었다. 모임이 끝난 후 대학의 교직원, 학생들은 농업 천하의 도너가 하는 졸업생에게 꽃목걸이를 걸어주고 꽃다발을 안겨주면서 뜨겁게 환호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금수산기념관을 찾아 24일 바우기 유수프 이스칸다르 총서기를 단장으로 하는 인도네시아공화국 제1차 및 공보기 술세대대표단을 비롯한 외국순님들이 경의를 표시하였다.

순님들은 나라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한평생을 바치시였으며 세계사주화 위업수행과 나라살사의 천선 판계발전에서 불멸의 공헌을 하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대한 다함없는 호모의 마음안고 경에하는 수령님께 인사를 드리었다.

그들은 방문록에 글을 남기었다.

경에하는 장군님의 구상을 앞장서서 반드시 협동법의 진파 해가주인, 녀성농촌혁명가로 현생을 빛내이며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총공격전에서 말장전 사명 과 분별을 다해나갈 굳은 결의들이 표명되었다. 모임이 끝난 후 대학의 교직원, 학생들은 농업 천하의 도너가 하는 졸업생에게 꽃목걸이를 걸어주고 꽃다발을 안겨주면서 뜨겁게 환호하였다.

영웅선동원의 대를 이어 농장으로 진출하는 새 세대 대학 졸업생

김일성종합대학 평양농업대학을 졸업한 정수림이 당의 농업 혁명방침을 받들고 사동구려련남해전선협동농장으로 자원 진출하였다.

사동구의교육체도의 해책에 대학과정을 우수한 성적으로 마친 그는 당의 원대한 농촌진기상을 충직하게 받든 천리마시대 영웅선동원의 대를 이어갈 일념으로 인민생활문제 해결의 생명선인 농업건설선으로 단련해나갔다.

조국과 혁명앞에 지닌 의무를 자각하고 어렵고 힘든 곳으로 달려가는 청년들의 수가 날로 늘어나는 속에 그가 대고조선대의 참된 선동원이 될것을 결의해나선것은 당의 뜻을 꽃피우는 길에서 청춘의 보람을 찾는 고상한 정신세계의 발현으로 된다.

김일성종합대학 평양농업대학을 졸업한 정수림이 당의 농업 혁명방침을 받들고 사동구려련남해전선협동농장으로 자원 진출하였다.

사동구의교육체도의 해책에 대학과정을 우수한 성적으로 마친 그는 당의 원대한 농촌진기상을 충직하게 받든 천리마시대 영웅선동원의 대를 이어갈 일념으로 인민생활문제 해결의 생명선인 농업건설선으로 단련해나갔다.

조국과 혁명앞에 지닌 의무를 자각하고 어렵고 힘든 곳으로 달려가는 청년들의 수가 날로 늘어나는 속에 그가 대고조선대의 참된 선동원이 될것을 결의해나선것은 당의 뜻을 꽃피우는 길에서 청춘의 보람을 찾는 고상한 정신세계의 발현으로 된다.

김일성종합대학 평양농업대학을 졸업한 정수림이 당의 농업 혁명방침을 받들고 사동구려련남해전선협동농장으로 자원 진출하였다.

사동구의교육체도의 해책에 대학과정을 우수한 성적으로 마친 그는 당의 원대한 농촌진기상을 충직하게 받든 천리마시대 영웅선동원의 대를 이어갈 일념으로 인민생활문제 해결의 생명선인 농업건설선으로 단련해나갔다.

조국과 혁명앞에 지닌 의무를 자각하고 어렵고 힘든 곳으로 달려가는 청년들의 수가 날로 늘어나는 속에 그가 대고조선대의 참된 선동원이 될것을 결의해나선것은 당의 뜻을 꽃피우는 길에서 청춘의 보람을 찾는 고상한 정신세계의 발현으로 된다.

김일성종합대학 평양농업대학을 졸업한 정수림이 당의 농업 혁명방침을 받들고 사동구려련남해전선협동농장으로 자원 진출하였다.

사동구의교육체도의 해책에 대학과정을 우수한 성적으로 마친 그는 당의 원대한 농촌진기상을 충직하게 받든 천리마시대 영웅선동원의 대를 이어갈 일념으로 인민생활문제 해결의 생명선인 농업건설선으로 단련해나갔다.

조국과 혁명앞에 지닌 의무를 자각하고 어렵고 힘든 곳으로 달려가는 청년들의 수가 날로 늘어나는 속에 그가 대고조선대의 참된 선동원이 될것을 결의해나선것은 당의 뜻을 꽃피우는 길에서 청춘의 보람을 찾는 고상한 정신세계의 발현으로 된다.

김일성종합대학 평양농업대학을 졸업한 정수림이 당의 농업 혁명방침을 받들고 사동구려련남해전선협동농장으로 자원 진출하였다.

사동구의교육체도의 해책에 대학과정을 우수한 성적으로 마친 그는 당의 원대한 농촌진기상을 충직하게 받든 천리마시대 영웅선동원의 대를 이어갈 일념으로 인민생활문제 해결의 생명선인 농업건설선으로 단련해나갔다.

조국과 혁명앞에 지닌 의무를 자각하고 어렵고 힘든 곳으로 달려가는 청년들의 수가 날로 늘어나는 속에 그가 대고조선대의 참된 선동원이 될것을 결의해나선것은 당의 뜻을 꽃피우는 길에서 청춘의 보람을 찾는 고상한 정신세계의 발현으로 된다.

김일성종합대학 평양농업대학을 졸업한 정수림이 당의 농업 혁명방침을 받들고 사동구려련남해전선협동농장으로 자원 진출하였다.

사동구의교육체도의 해책에 대학과정을 우수한 성적으로 마친 그는 당의 원대한 농촌진기상을 충직하게 받든 천리마시대 영웅선동원의 대를 이어갈 일념으로 인민생활문제 해결의 생명선인 농업건설선으로 단련해나갔다.

조국과 혁명앞에 지닌 의무를 자각하고 어렵고 힘든 곳으로 달려가는 청년들의 수가 날로 늘어나는 속에 그가 대고조선대의 참된 선동원이 될것을 결의해나선것은 당의 뜻을 꽃피우는 길에서 청춘의 보람을 찾는 고상한 정신세계의 발현으로 된다.

김일성종합대학 평양농업대학을 졸업한 정수림이 당의 농업 혁명방침을 받들고 사동구려련남해전선협동농장으로 자원 진출하였다.

사동구의교육체도의 해책에 대학과정을 우수한 성적으로 마친 그는 당의 원대한 농촌진기상을 충직하게 받든 천리마시대 영웅선동원의 대를 이어갈 일념으로 인민생활문제 해결의 생명선인 농업건설선으로 단련해나갔다.

조국과 혁명앞에 지닌 의무를 자각하고 어렵고 힘든 곳으로 달려가는 청년들의 수가 날로 늘어나는 속에 그가 대고조선대의 참된 선동원이 될것을 결의해나선것은 당의 뜻을 꽃피우는 길에서 청춘의 보람을 찾는 고상한 정신세계의 발현으로 된다.

김일성종합대학 평양농업대학을 졸업한 정수림이 당의 농업 혁명방침을 받들고 사동구려련남해전선협동농장으로 자원 진출하였다.

사동구의교육체도의 해책에 대학과정을 우수한 성적으로 마친 그는 당의 원대한 농촌진기상을 충직하게 받든 천리마시대 영웅선동원의 대를 이어갈 일념으로 인민생활문제 해결의 생명선인 농업건설선으로 단련해나갔다.

조국과 혁명앞에 지닌 의무를 자각하고 어렵고 힘든 곳으로 달려가는 청년들의 수가 날로 늘어나는 속에 그가 대고조선대의 참된 선동원이 될것을 결의해나선것은 당의 뜻을 꽃피우는 길에서 청춘의 보람을 찾는 고상한 정신세계의 발현으로 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적십자회 중앙위원회에서 인본적십자사에 위문금을 보내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적십자회 중앙위원회에서는 최근 일본에서 일어난 대지진과 해일로

많은 인명피해와 물질적손실이 초래된것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유가족들에게 깊은 동정을 표시

하면서 인본적십자사에 10만 US\$의 위문금을 보내었다. 【조선중앙통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올림픽위원회 년차총회 진행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올림픽위원회는 24일 인민문화궁전에서 진행하였다. 올림픽위원회 성원들, 체육부분과 관련부문 일군들이 총회에 참가하였다. 총회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올림픽위원회 주재 99 (2010)년 사업총회와 주제 100 (2011)년 사업방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올림픽위원회 년차총회 진행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올림픽위원회는 24일 인민문화궁전에서 진행하였다. 올림픽위원회 성원들, 체육부분과 관련부문 일군들이 총회에 참가하였다. 총회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올림픽위원회 주재 99 (2010)년 사업총회와 주제 100 (2011)년 사업방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올림픽위원회 년차총회 진행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올림픽위원회는 24일 인민문화궁전에서 진행하였다. 올림픽위원회 성원들, 체육부분과 관련부문 일군들이 총회에 참가하였다. 총회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올림픽위원회 주재 99 (2010)년 사업총회와 주제 100 (2011)년 사업방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올림픽위원회 년차총회 진행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올림픽위원회는 24일 인민문화궁전에서 진행하였다. 올림픽위원회 성원들, 체육부분과 관련부문 일군들이 총회에 참가하였다. 총회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올림픽위원회 주재 99 (2010)년 사업총회와 주제 100 (2011)년 사업방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올림픽위원회 년차총회 진행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올림픽위원회는 24일 인민문화궁전에서 진행하였다. 올림픽위원회 성원들, 체육부분과 관련부문 일군들이 총회에 참가하였다. 총회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올림픽위원회 주재 99 (2010)년 사업총회와 주제 100 (2011)년 사업방향

우리민족끼리리념은 조국통일운동의 생명선

오늘 우리 겨레앞에는 하루빨리 민족 분열의 비극을 끝내고 21세기의 새로운 100년대를 희망의 년대, 통일과 번영의 년대로 빛내어나가야 할 영예롭고도 무거운 과업이 나하고있다. 조국통일은 우리 민족의 한결같은 지향이며 의지이다. 외세가 강요한 민족의 분열이 60여년동안이나 지속되고있는것은 참을수 없는 민족적비극이다. 우리 민족은 단군을 원시조로 하여 하나의 강토에서 한피줄을 이으며 유구한 역사와 찬란한 문화, 애국의 전통을 창조한 세계에 보기 드문 단일민족이다. 분열은 반만년민족사의 일시적국적이며 조국통일은 민족사의 필연적주제이다.

우리 민족은 역사적인 6. 15공동선언과 그 실현강령인 10. 4선언의 채택으로 조국통일과 평화번영의 새시대를 맞이하였다. 북남선언들의 가치와 력사의 온갖 도전과 시련을 과감히 물리치며 힘차게 전진하여온 조국통일운동은 유일무이한 애국애족의 리념인 우리 민족끼리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뚜렷이 확증해주고있다.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가 응징을 지켜온 6. 15 통일시대의 정신도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이 희망과 낙관을 넘쳐 그려보는 밝은 레일을 우리 민족끼리리념으로 통일되고 번영하는 삼천리조국강토이다.

전체 조선민족은 북남선언들과 그 기본정신인 우리 민족끼리리념을 생명선으로 틀어쥐고 철저히 구현해나감으로써 조국통일, 평화번영을 하루빨리 이룩하여 할것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민족 자주의 원칙에서 민족적단합을 이룩하고 반분열분단의 온갖 책동을 힘써서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기어이 조국통일위업을 실현하여야 합니다.》

조국통일운동은 우리민족끼리리념을 생명선으로 하여 전진하는 성스러운 애국애족의 운동이다.

조국통일은 우리 민족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민족적과업이다. 우리나라의 분열은 민족내부의 모순에

의하여 초래된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외세에 의하여 강요된것이다. 조국을 통일하는것은 온 민족의 리의를 실현하기 위한 위업이며 겨레의 세계적책임이다.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은 외세의 침략책동을 반대하여 온 민족이 단결하여 투쟁해야만 승리할수 있는 거족적투쟁이다. 60여년간에 달하는 조국통일운동역사는 자주통일을 지향하는 애국력량이 단결의 위력으로 승리해온 력사이다.

우리 겨레는 세기와 세기가 교차되는 력사의 분수령에서 6. 15공동선언과 우리 민족끼리라는 애국애족의 리념을 받아안았다. 자주와 단합의 기치를 추켜든 우리 민족은 통일과 번영의 새 력사를 개척해나가는 민족으로 되게 되었다. 폭넓은 운명의 길을 걸어오면서 자주와 단결의 필요성과 귀중함을 뼈에 사무치게 체험한 조선민족이 우리 민족끼리를 자주적운동명제의 최우명으로, 6. 15통일시대의 기본리념으로 간직하게 됨으로써 통일의 밝은 미래를 내다볼수 있게 되었다.

우리민족끼리리념은 자주와 단합의 기치를 조국통일운동을 전진시켜나가기 위한 승리의 포대이다.

조국통일위업은 우리 민족자신이 주인으로서 수행하여야 할 자주적위업이며 그 승리의 비결도 자주로선을 확고히 견지하는데 있다.

통일문제해결에서 자주와 단결의 원칙과 입장을 견지하는것은 조국통일운동의 승패를 좌우하는 근본문제로서 조국통일운동의 총구적승리를 위한 필수적으로 나선다.

나라와 민족의 생명인 자주성이 외세에 의하여 유린당하여온 역사적현실은 외세에 의존해서는 언제 가도 우리의 통일을 실현할수 없다는것을 깨우쳐주고있다. 침략적인 외세는 결코 북남관계개선과 우리 민족의 통일을 바라는 않는다. 빼앗긴 민족의 자주권을 도로 찾는 조국통일문제를 외세에 의존하여 해결하려 하는것은 예측의 불가미를 스스로 목에 거는것이나 다름없다. 조국통일의 주제인 우리 민족자제의 힘으로 서만 나라의 통일을 민족의 의사와

리익에 맞게 성과적으로 실현할수 있다. 그 누구도 조국을 통일하기 위한 우리 민족의 투쟁을 대신할수 없다.

6. 15공동선언과 10. 4선언의 핵인 우리 민족끼리라는 조국통일을 우리 민족자제의 힘으로 이룩하려는 강한 민족자제의 사상이 맥박치고있다. 북남공동선언에서 천명된 우리민족끼리정신은 겨레의 자주성을 비강히 높여주었으며 조국통일운동이 자주의 궤도를 따라 전진하고 민족자주가 6. 15 통일시대의 대대로 되게 하였다. 북남관계문제와 통일문제에 대한 의사와 그에 추종하는 반동일세력의 악랄한 도전과 방해책동이 계속되고있지만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따라 자주통일의 기치를 높이 들고 전진하고 있다.

오늘 북남관계는 의연히 긴장하고 침체하며 6. 15통일시대의 전진을 가로막기 위한 호전파들의 대결정책을 옹호하고 있다. 그러나 애국애족의 정신에 기초한 단결을 실현하게 하는것이 바로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이다. 해외의 온 겨레가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이 가리키는 길을 따라 나아가면 민족의 화해와 단합이 실현되고 조국통일운동은 내외반동일세력의 그 어떤 도전도 물리치며 승리적으로 전진하게 될것이다.

우리민족끼리리념은 민족의 대단결로 운동명제의 앞길을 열어나가기 위한 애국애족의 리념이다.

단결은 우리 민족의 자주적운동명제의 위대한 무기이다. 모든 사회적운동과 마찬가지로 우리 민족의 조국통일운동도 그 주제인 민족통일의 단결을 떠나서 승리를 기대할수 없다. 그것은 나라의 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이 그것을 가로막는 반동일세력의 침에 우심하며 이루어져야만 한다. 자주통일위업을 담당수행할 주체적력량이 위력할 때에만 통일운동은 민족의 의사와 리익에 맞게 성과적으로 추진해 나갈수 있다. 민족대단결을 자주통일위업실현의 결정적담보이다.

6. 15공동선언에서 제시된 우리민족끼리리념은 민족의 화합과 단결로 통일과 번영의 길을 열어나가기 위한

위력한 단결의 리념이다. 우리민족끼리리념에는 사상과 제도의 차이를 뛰어넘어 한피줄을 나눈 동족끼리 단결하려는 민족성원들의 지향과 념원이 반영되어있다.

우리 나라의 통일문제는 본질에 있어서 민족적단합을 실현하는 문제이다. 현실은 사상과 제도에 민족을 놓고 민족적공통성에 기초하여 단결을 실현할것을 요구하고있다. 북과 남의 우리 겨레는 같은 민족으로서 서로 단결하여 조국통일과 민족번영의 길을 함께 열어나갈것을 바라고있다. 지난 60여년간 우리 민족은 분열의 비극으로 하여 누구보다도 불행과 재난, 고통을 많이 당하였다. 갈라진 조국강토를 하나로 잇기 위하여 수많은 통일애국선열들이 피와 땀을 아낌없이 바쳐왔다. 반만년의 력사를 자랑하는 우리 민족은 마땅히 하나의 통일조국에서 살아야 하며 강성번영을 이룩해야 한다.

오랜 세월 하나의 혈통을 이어온 우리 민족이 민족성과 애국애족의 정신에 의거한다면 승리 공고한 단결을 이룩할수 있다. 그러한 애국애족의 정신에 기초한 단결을 실현하게 하는것이 바로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이다. 해외의 온 겨레가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이 가리키는 길을 따라 나아가면 민족의 화해와 단합이 실현되고 조국통일운동은 내외반동일세력의 그 어떤 도전도 물리치며 승리적으로 전진하게 될것이다.

우리민족끼리리념은 민족의 대단결로 운동명제의 앞길을 열어나가기 위한 애국애족의 리념이다.

단결은 우리 민족의 자주적운동명제의 위대한 무기이다. 모든 사회적운동과 마찬가지로 우리 민족의 조국통일운동도 그 주제인 민족통일의 단결을 떠나서 승리를 기대할수 없다. 그것은 나라의 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이 그것을 가로막는 반동일세력의 침에 우심하며 이루어져야만 한다. 자주통일위업을 담당수행할 주체적력량이 위력할 때에만 통일운동은 민족의 의사와 리익에 맞게 성과적으로 추진해 나갈수 있다. 민족대단결을 자주통일위업실현의 결정적담보이다.

6. 15공동선언에서 제시된 우리민족끼리리념은 민족의 화합과 단결로 통일과 번영의 길을 열어나가기 위한

최철순

《민족의 혁명사사시, 세기의 대위인전》

《어느 시대에나 위인이 없지 않았고 회고록을 남긴 성인들도 있었다.》

그러나 김일성주석님의 회고록에는 걸출수 있는 것이 없다. 김일성주석님의 회고록에는 문장들은 평이해 도 우주를 깨우치고 말씀들은 간명해도 거기에선 민족의 자주적운동명제의 진로가 있다. 이것은 남조선의 미패연구회의 한 회원이 위대한 수령님의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를 읽고 쓴 글의 한 대목이다.

위대한 수령님의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를 읽은 사람은 누구나 다 수령님의 위대성에 대한 감정을 애혹과 뉘우침 없는 찬란을 금지 못하고 있다. 그 내용이 크나큰 감동과 생활력을 가지고있는것으로 하여 위대한 수령님의 회고록은 만사사람의 심금을 울려주고있다.

남 조 세 계 는 어버이수령님의 회고록을 열심히 탐독하면서 그의 위대한 생애를 격조높이 칭송하고 있다. 지금도 남조선 각계에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에 대한 탐독열의가 날이 갈수록 더욱 높아지고있다.

언제인가 남 조 선 출판계의 한 인사는 어버이수령님의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는 정명 민족의 혁명사사시, 세기의 대위인전이라고

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소박한 민중의 아들로 탄생하시어 오로지 민중을 위하여 민중과 더불어 한평생을 바쳐 오신 김일성주석님의 생애를 읽으며 그의 위대함을 심장으로 걸맞추었다.》

그의 출판사에서 《봄을 부르며》라는 제목으로 회고록을 수없이 출판하여 책방에 내놓았는데 하루에만도 1만 5 000여부나 나갔다고 한다. 그는 이것은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남녘겨레의 뜨거운 경모심의 반영으로 볼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이 책을 읽으며 여러모로 압력을 가하고있지만 민심을 따르는것이 언론인의 망심이고 기쁨이라고 믿기때문에 회고록을 출판보급하는 일을 절대로 그만두수 없다고 하였다.

이에 대해 남조선의 한 작가는 민심취체에 이렇게 썼다. 《김일성주석님의 위인상을 심장깊이 애혹하며 위인을 모신 무한한 행복감에 잠겨 있는 우리 민중에 의해 세계적 위인전인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 탐독열풍은 더욱 강렬해질것이다.》

남조선의 한 대학교수는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를 반드시 읽어야 할 이유에 대하여 이렇게 썼다.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는 필독서와도 같다. 나는 통일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물론이고 앞으로 북과 대화를 할 바라는 사람들은 반드시 회고록을 먼저 읽으라고 권고한다.》

김일성주석님의 항일투쟁투쟁은 지울수 없는 력사적사실이다. 회고록내용의 80%이상만이라도 대강대강에 안치되어있는 력사적사실은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를 민족의 단결로 가두었다. 다시말하여 이 책은 동지들이 대한 애환 신의와 사랑이

무엇인가를 한눈에 보여주고있다. 그래서 회고록을 읽어야 북이 오늘과 같이 지도자를 중심으로 철옹성같이 뭉쳐있는것을 리해할수 있고 미국과 같은 강대국도 이 철옹성앞에서 뿔뿔히 떨어져 있는 리유를 알게 될것이다.》

남조선의 한 주민은 《《세기와 더불어》를 읽으시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이렇게 썼다. 《남녘의 많은 사람들이 어버이수령님의 회고록을 읽고 북에 대해 조금이라도 알게 되었으며 그것이 전리록을 알게 된 계기가 되고 지금도 이 책을 읽으면서 진실과 정의에 대해 생각한다고 쓴 글들을 읽고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다.》

나는 어버이수령님의 회고록을 읽으면서 자신보다도 전우들을 내세우고 그들의 의훈에 대해 더 많이 쓰는데 대해 깊은 감명을 받았다. 그리고 이런 좋은 책을 조선사람들이라면 누구나 다 읽고 거기서 력사를 알고 참된 인간이 되는 진로를 깨달으며 통일전진 민족의 미래를 그려보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우리는 회고록의 내용을 자자구구 새기고 머릿속에 생동하게 그려보고 있다.》

사실들은 민족의 자주적운동명제의 앞길을 환히 밝혀주는 고귀한 진리가 담겨진 위대한 수령님의 회고록이 남녘겨레들의 마음을 울려주고있으며 그들을 통일애국투쟁으로 적극 고무추동하고있다는것을 보여 준다.

태양정이 다가올수록 조국의 해방과 통일을 위해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치신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을 높이 쳐보려는 남녘겨레들은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를 민족의 단결로 가두었다. 다시말하여 이 책은 동지들이 대한 애환 신의와 사랑이

남조선 호전광물 요구

남조선의 《한 련행된 국정년례》가 22일 성명을 발표하여 과소 당국이 부당하게 련행된 대학 생들을 즉시 석방할것을 요구 하였다. 성명은 당국이 경제학술활동을 벌인 단체까지 《리적》의 골목에 걸쳐 전면해상에서 대규모군사연습을 감행하려 하였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총재동

대학생들의 석방을 요구

대공본실앞에서 항의투쟁을 벌인 50여명의 대학생들까지 무자비하게 련행하였다고 성명 은 비난하였다. 성명은 당국이 경제학술활동을 벌인 단체까지 《리적》의 골목에 걸쳐 전면해상에서 대규모군사연습을 감행하려 하였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총재동

이번 폭압은 국정년례가

《정권》이 22일 성명을 발표하여 과소 당국이 부당하게 련행된 대학생들을 즉시 석방할것을 요구 하였다. 성명은 당국이 경제학술활동을 벌인 단체까지 《리적》의 골목에 걸쳐 전면해상에서 대규모군사연습을 감행하려 하였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총재동

남조선 호전광물

남조선 《MBC》방송에 의한 남조선해군에 25일부터 3일간에 걸쳐 전면해상에서 대규모군사연습을 감행하려 하였다. 남조선 호전광물은 해군의 대규모 해상군사연습을 획책

대규모 해상군사연습을 획책

남조선 《MBC》방송에 의한 남조선해군에 25일부터 3일간에 걸쳐 전면해상에서 대규모군사연습을 감행하려 하였다. 남조선 호전광물은 해군의 대규모 해상군사연습을 획책

사적화된도 획책하고있다.

남조선호전광물의 대규모해상군사연습은 조선반도평화와 안정을 바라는 온 겨레와 세계여론에 대한 공공연한 도전행위이다. 【조선중앙통신】

태양절 기념준비위원회

태양절 기념준비위원회 결성

태양절 기념준비위원회 결성

태양절 기념준비위원회 결성

태양절 기념준비위원회 결성

태양절 기념준비위원회 결성

태양절 기념준비위원회 결성

태양절 기념준비위원회 결성

태양절 기념준비위원회 결성

태양절 기념준비위원회 결성

태양절 기념준비위원회 결성

태양절 기념준비위원회 결성

태양절 기념준비위원회 결성

태양절 기념준비위원회 결성

태양절 기념준비위원회 결성

태양절 기념준비위원회 결성

태양절 기념준비위원회 결성

태양절 기념준비위원회 결성

태양절 기념준비위원회 결성

태양절 기념준비위원회 결성

태양절 기념준비위원회 결성

태양절 기념준비위원회 결성

태양절 기념준비위원회 결성

태양절 기념준비위원회 결성

태양절 기념준비위원회 결성

태양절 기념준비위원회 결성

태양절 기념준비위원회 결성

태양절 기념준비위원회 결성

태양절 기념준비위원회 결성

태양절 기념준비위원회 결성

태양절 기념준비위원회 결성

태양절 기념준비위원회 결성

태양절 기념준비위원회 결성

태양절 기념준비위원회 결성

태양절 기념준비위원회 결성

태양절 기념준비위원회 결성

태양절 기념준비위원회 결성

태양절 기념준비위원회 결성

태양절 기념준비위원회 결성

태양절 기념준비위원회 결성

태양절 기념준비위원회 결성

태양절 기념준비위원회 결성

태양절 기념준비위원회 결성

태양절 기념준비위원회 결성

태양절 기념준비위원회 결성

태양절 기념준비위원회 결성

태양절 기념준비위원회 결성

태양절 기념준비위원회 결성

태양절 기념준비위원회 결성

태양절 기념준비위원회 결성

태양절 기념준비위원회 결성

태양절 기념준비위원회 결성

태양절 기념준비위원회

태양절 기념준비위원회 결성

태양절 기념준비위원회 결성

태양절 기념준비위원회 결성

태양절 기념준비위원회 결성

태양절 기념준비위원회 결성

태양절 기념준비위원회 결성

태양절 기념준비위원회 결성

태양절 기념준비위원회 결성

태양절 기념준비위원회 결성

태양절 기념준비위원회 결성

태양절 기념준비위원회 결성

태양절 기념준비위원회 결성

태양절 기념준비위원회 결성

태양절 기념준비위원회 결성

태양절 기념준비위원회 결성

태양절 기념준비위원회 결성

태양절 기념준비위원회 결성

태양절 기념준비위원회 결성

태양절 기념준비위원회 결성

태양절 기념준비위원회 결성

태양절 기념준비위원회 결성

태양절 기념준비위원회 결성

태양절 기념준비위원회 결성

태양절 기념준비위원회 결성

태양절 기념준비위원회 결성

태양절 기념준비위원회 결성

태양절 기념준비위원회 결성

태양절 기념준비위원회 결성

태양절 기념준비위원회 결성

태양절 기념준비위원회 결성

태양절 기념준비위원회 결성

태양절 기념준비위원회 결성

태양절 기념준비위원회 결성

태양절 기념준비위원회 결성

태양절 기념준비위원회 결성

태양절 기념준비위원회 결성

태양절 기념준비위원회 결성

태양절 기념준비위원회 결성

태양절 기념준비위원회 결성

태양절 기념준비위원회 결성

태양절 기념준비위원회 결성

태양절 기념준비위원회 결성

태양절 기념준비위원회 결성

태양절 기념준비위원회 결성

태양절 기념준비위원회 결성

태양절 기념준비위원회 결성

태양절 기념준비위원회 결성

태양절 기념준비위원회 결성

태양절 기념준비위원회 결성

태양절 기념준비위원회 결성

태양절 기념준비위원회 결성

태양절 기념준비위원회

태양절 기념준비위원회 결성

태양절 기념준비위원회 결성

태양절 기념준비위원회 결성

태양절 기념준비위원회 결성

태양절 기념준비위원회 결성

태양절 기념준비위원회 결성

태양절 기념준비위원회 결성

태양절 기념준비위원회 결성

태양절 기념준비위원회 결성

태양절 기념준비위원회 결성

태양절 기념준비위원회 결성

태양절 기념준비위원회 결성

태양절 기념준비위원회 결성

태양절 기념준비위원회 결성

태양절 기념준비위원회 결성

태양절 기념준비위원회 결성

태양절 기념준비위원회 결성

태양절 기념준비위원회 결성

태양절 기념준비위원회 결성

태양절 기념준비위원회 결성

태양절 기념준비위원회 결성

태양절 기념준비위원회 결성

태양절 기념준비위원회 결성

태양절 기념준비위원회 결성

태양절 기념준비위원회 결성

태양절 기념준비위원회 결성

태양절 기념준비위원회 결성

태양절 기념준비위원회 결성

태양절 기념준비위원회 결성

태양절 기념준비위원회 결성

태양절 기념준비위원회 결성

태양절 기념준비위원회 결성

태양절 기념준비위원회 결성

태양절 기념준비위원회 결성

태양절 기념준비위원회 결성

태양절 기념준비위원회 결성

자주, 자립에 과학기술강국의 진로가 있다

온 나라에 CNC머린이 돌아오고 있다. 요즘 사람들은 매일 당포에 편재되는 도서 《장군님과 CNC》를 호기심과 흥미를 가지고 탐독하고 있다. 대내외에서 지면과 인터넷을 통한 《장군님과 CNC》도서에 대한 독서율은 기록적으로 높다.

그런가 하면 우리 나라에서의 CNC화에 대해 외국인관계가 앞을 다투며 소개전전하고 있다. 주목되는 것은 그러한 보도내용들이 온 나라의 CNC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불면불휴의 로고와 정력을 바치고 계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에 대한 격찬과 흠모심으로 승화되고 있는 것이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신 김정일동지의 지칠 줄 모르는 영도 조선에서 CNC설비를 갖춘 현대적인 공장들이 줄줄이 건설되고 있다.》, 《자체의 힘과 기술에 의한 주제철생산체제 완성. CNC기술의 최첨단들과 등 세인을 놀래우는 기적들은 김정일영도자의 로고와 그의 두리에 한마음 한뜻으로 동지들이 조선인민의 위대한 승리이다.》, 《김정일영도자에 의해 CNC도미가 조선에서 일어나고 있다.》, 《조선은 가까운 앞날에 CNC강대국이라는 거창한 현실을 안아올 것이다.》...

이처럼 국제사회에서는 우리의 CNC화에 깊은 주목을 돌리며 경탄해 다녔고 있다. 그럼수록 그 귀중한 결실을 안아오신 경애하는 장군님에 대한 흠모열기가 더욱 뜨거워지고 있다.

반면에 주제의 CNC열풍은 제국주의자들에게는 무서운 공포를 주고 있다.

과학기술로 모든 나라들을 누르고 올라가려는 것이 현대제국주의자들의 오만한 사고관점이며 지배주의적 인 전락이다. 선군의 기치밑에 사회주의를 건설하라는 호령을 내리며 강대국으로 나아가는 우리 나라가 그 주되는 파격으로 되고 있다. 제국주의자들은 우리 공화국을 고립시키려고 앞장서서 정치적으로도 군사적으로도 침략을 시도하면서 강화하는 것과 동시에 과학기술적 봉쇄와

경제정책을 강행하고 있다. 하지만 그들은 우리 나라를 정치사상적으로, 군사적으로는 물론 경제적으로나 과학기술적으로도 어찌하지 못하고 있다. 그들은 강성대국건설대전의 세한 불바람속에서 조선은 결실하면 한다는 신념의 구호밑에 우리 식 최첨단CNC기술이 급속히 발전하고 있는 비결에 대해 알 수 없었던 것이다. 그들의 편견적이고 근시안적인 사고방식으로 우리 장군님의 CNC체제를 도저히 가능할 수 없었다.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강성대국을 건설하자면 나라의 인민경제를 빨리 발전시키고 인민경제를 높은 수준에서 현대화하여야 합니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위대한 CNC구상을 높이 받들고 우리의 과학자, 기술자들은 자체의 기술과 지혜로 우리 식 CNC공작기계를 만들어냄으로써 불가능을 모르는 조선사람의 본래와 실천력을 세계에 다 시현한 보여주고 있다.

CNC장공은 최첨단의 돌파인 동시에 자력생성의 결정체이다. 당의 부름에 끝없이 충실한 우리의 과학자, 기술자들과 로동계급은 온 나라의 CNC화를 실현하려는 위대한 장군님의 구상을 활짝 꽃피우기 위해 4, 5, 6층에 이르는 8, 9층의 CNC공작기계를 척척 만들어내며 최첨단과 최정밀의 열풍을 세계에 일으키고 있다.

CNC기술에서 앞섰다고 하는 나라들도 감히 업무를 못하는 최첨단 CNC설비를 만들어내는 우리의 과학기술적 역량, 정신력에 위압되어 적대세력들은 아우성을 치고 있다. 그것은 우리 식 CNC기술에서 별의별 것이 다 나오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마음만 먹으면 프로그램에 따라 가지가지의 제품들이 폭포처럼 쏟아져 나오는 것이 우리 식 CNC의 매력이고 우월성이다. 우리 나라는 CNC기

술에서 세계적수준을 돌파함으로써 세상사람들을 놀래우고 있다. 지난해 평양가을철국제상품전람회에 참가했던 한 외국기업가는 우리의 CNC공작기계를 보고 몹시 놀라와 하였다. 어떻게 조선에서 이런 최첨단CNC기계가 나올 수 있는가, 또 발전된 나라들의 것과는 다른 독특한 CNC설비를 만들어낼 수 있는가 하는 것이 그의 의문이었다. 그는 우리 식 CNC기술에 탄복하여 단도직입적으로 기술교류를 제의하였다.

우리의 CNC는 자주, 자립의 CNC이다.

모든 창조물에는 그 창조자의 정신력과 의지가 깃들여 있다. 주제의 CNC기술은 그 어느 나라 실마리를 뚫어주어 만든 것도 아니며 또한 그것을 개발할 수 있는 물질기술적 조건이 충족되어 실현한 것도 아니다. 그것은 강의한 자주정신의 산물이며 결정체이다.

그 무엇보다도 없애지지 않고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살며 발전하려는 것은 인간의 본성이며 지향이다. 우리 인민은 누구보다도 자주성과 창조성을 귀중히 여긴다. 우리 인민은 자주정신과 자립성이 강하여 결사항전은 모진 곤란과 시련을 파감히 이겨내며 무에서 유를 창조하고 세계를 놀래우는 대박, 대혁신을 끊임없이 일으켜왔다. 그런 박찬 투쟁속에서 우리 인민은 CNC 최첨단도 돌파하고 있는 것이다.

하기에 우리 인민은 자주, 자립에 기초한 우리 식 CNC화를 두고 그로써 기뻐하고 자랑스러워하며 크나큰 긍지와 자부심을 넘쳐있는 것이다.

주제의 CNC성공, 이것은 곧 자주, 자립을 지향하는 나라와 민족들이 경제적, 과학기술적진보를 어떻게 이루어야 하는가를 보여준 산모범으로 된다.

우리의 CNC는 정의의 CNC이다. 과학기술의 운도는 그 소유자에 따라 달라진다. 다시말하여 과학기

술은 그 소유자가 누구인가에 따라 인류를 위하여 쓰이는가 아니면 인류를 반대하는데 쓰이는가 하는 것이 결정된다. 온 세상의 사람들은 과학기술을 다른 나라와 민족에 대한 지배와 약탈, 침략과 전쟁책동을 강화하는데 리용하고 있다. 인류의 복리증진과 문명발전에 리용되어야 할 과학기술이 제국주의자들에게 의해 그 사명과 용도가 전도되는 것은 과학의 본성적요구가 아니다. 일찍이 원자력을 연구개발한 과학자는 자기의 과학적성과가 인류를 해치는 데 쓰이는 것을 두고 후회하였었다. 과학기술은 명실공히 인간을 위하여, 인류를 위하여 리용되어야 한다.

우리의 CNC기술은 제국주의자들이 우리의 전진을 막아보고 날뛰고 있는 데 대처하여 100% 자체의 기술과 지혜로 개발한 정의의 최첨단과학기술이다.

주제의 CNC기술을 개발하는 과정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다. 세기의 한랭은 진통을 겪는 법이다. 우리의 CNC는 부닥치는 온갖 난관과 예로를 뚫고 이 세상에서 단상한 정의의 승리이며 선군시대의 위대한 창조물이다.

지식경제시대인 오늘날 떨어지면 기술의 노예되다는 자각을 가지고 우리 로동계급과 과학자, 기술자들은 적대세력들의 악랄한 대조고립압박행동에 맞서 결연히 일터였다. 우리의 과학자, 기술자들은 끊임없이 이어오는 제국주의자들의 비열한 과학기술봉쇄와 경제책동에 주저없이 맞서 싸워 나가고 있다. 제국주의가 최첨단과학기술을 독점하던 시대는 바야흐로 막을 내리고 있다.

우리의 CNC기술개발로 하여 제국주의 과학기술독점책에는 종지부가 찍히게 되었고 세계에 대한 그들의 경제적, 과학기술적지배전략이 파산의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온 세상의 CNC기술성공은 자주, 자립을 지향하는 나라들, 과학기술이 뒤떨어진 나라들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며 고무작용을 안겨주고 있다.

현시대는 자주적립과 지배주의세력사이의 치열한 투쟁이 벌어지는 시대이다. 제국주의세력이 자주적립을 경제적으로, 과학기술적으로 지배하려고 책동하고 있는 조건에서

위력한 보침을 가지게 되었다. 주제의 CNC기술은 우리 나라를 과학기술강국의 지위에 우뚝 올려 세웠다.

오늘 국제무대에서는 과학기술에서 앞섰다고 하는 나라들이 제노라하고 있다. 이 나라들은 새로운 강국의 출현을 몹시 시기질투하고 있다. 이런 조건에서 주제적인 판결과 필장을 가지고 최첨단과학기술을 개발, 발전시키나가지 않으면 뒤떨어진 나라들이 언제 가도 선진국대에 들어설 수 없고 인민들의 복리증진, 사회경제적진보를 원만히 보장할 수 없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천리해안의 과학기술적선진성과 구상, 정력적인 영도에 의하여 우리 나라가 주제의 CNC기술을 확보함으로써 과학기술강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겨루게 되었다. 우리 나라가 CNC기술의 명맥, 패권을 틀어쥔 것은 우리 당의 자주로선, 과학기술중시사상의 빛나는 승리로, 주제조선의 무궁무진한 위력의 힘은 과시로 된다.

주제의 CNC화는 과학기술봉쇄책동과 고립압박을 추구하는 제국주의자들에게는 심대한 타격을 안겨준다. 제국주의는 한마디로 독점주의라고 말할 수 있다. 제국주의가 최첨단과학기술을 독점하던 시대는 바야흐로 막을 내리고 있다.

우리의 CNC기술개발로 하여 제국주의 과학기술독점책에는 종지부가 찍히게 되었고 세계에 대한 그들의 경제적, 과학기술적지배전략이 파산의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온 세상의 CNC기술성공은 자주, 자립을 지향하는 나라들, 과학기술이 뒤떨어진 나라들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며 고무작용을 안겨주고 있다.

현시대는 자주적립과 지배주의세력사이의 치열한 투쟁이 벌어지는 시대이다. 제국주의세력이 자주적립을 경제적으로, 과학기술적으로 지배하려고 책동하고 있는 조건에서

최첨단과투쟁은 심각한 계급투쟁이 아닐 수 없다.

최첨단을 돌파하려는 우리 당의 사상과 부름에는 제국주의의 과학기술독점책과 지배주의야망을 분쇄해버리고 인류공동의 과학기술발전을 추동하려는 우리 인민의 결연한 자주정신과 혁명적의지가 담겨져 있다.

우리 나라에서의 CNC성공은 자주적립에게 최첨단과학기술이 결코 뒤떨어진 나라들이 언제 가도 선진국대에 들어설 수 없고 인민들의 복리증진, 사회경제적진보를 원만히 보장할 수 없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천리해안의 과학기술적선진성과 구상, 정력적인 영도에 의하여 우리 나라가 주제의 CNC기술을 확보함으로써 과학기술강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겨루게 되었다. 우리 나라가 CNC기술의 명맥, 패권을 틀어쥔 것은 우리 당의 자주로선, 과학기술중시사상의 빛나는 승리로, 주제조선의 무궁무진한 위력의 힘은 과시로 된다.

주제의 CNC화는 과학기술봉쇄책동과 고립압박을 추구하는 제국주의자들에게는 심대한 타격을 안겨준다. 제국주의는 한마디로 독점주의라고 말할 수 있다. 제국주의가 최첨단과학기술을 독점하던 시대는 바야흐로 막을 내리고 있다.

우리의 CNC기술개발로 하여 제국주의 과학기술독점책에는 종지부가 찍히게 되었고 세계에 대한 그들의 경제적, 과학기술적지배전략이 파산의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온 세상의 CNC기술성공은 자주, 자립을 지향하는 나라들, 과학기술이 뒤떨어진 나라들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며 고무작용을 안겨주고 있다.

주제의 CNC열풍은 력사의 넓은 세력인 제국주의의 지배주의정체를 분쇄하는 반면에 정의의 지향하는 진보적인류들 자주, 자립을 위한 성스러운 위업실현으로 힘있게 떠밀고 있다.

주제의 CNC성공에 고무된 세계 진보적인민들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천세적인 과학기술적예지와 선진지정, 영도의 위대성에 대한 탄복과 칭송의 목소리를 더욱 높이고 있다.

로씨야의 한 신문은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의 사전을 정중히 모시고 《영도자를 따라 위대한 목적을 향해》라는 제목의 글에서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신 김정일동지의 지칠 줄 모르는 영도 조선에서 주제조선이 쏟아져나오고 수백발전소들과 CNC설비를 갖춘 현대적인 공장들이 건설되고 있다.》

미국을 비롯한 적대세력들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발전을 가로막기 위해 온갖 책동을 다하고 있으며 조선반도정세는 긴장상태에 있다. 그러나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이끄시는 조선로동당의 영도를 받는 조선인민의 승리는 확정적이다.》라고 강조하였다.

요르단의 한 인사는 자기의 글에서 이렇게 썼다.

《김정일영도자의 현저지도는 자체의 힘과 기술로 제작한 인공지구위성 《광명성2호》의 성과적발사, 주제철생산체제의 완성, 인민경제 여러 분야에서 CNC화의 추진, 주제성공 비발탄속의 생산과 같은 세계적인 사건들을 안아온 원동력이다.》

외국의 빛들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CNC화구상에 따라 사회주의조선에서 이는 이미 강성대국건설이 CNC프로그램대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밀하게 전진해나가고 있으며 세계 자주화위업의 승리가 정확한 시간대로 앞당겨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주제의 CNC열풍은 앞으로 우리 나라에서뿐 아니라 위도와 경도를 넘어 세계적인위로 세차게 휘몰아쳐갈 것이다.

채 일 출

로씨야 대통령 나라의 무력화문제에 대해 언급

로씨야대통령 드미트리 메드베제프가 18일 한 회의에서 연설하면서 나라의 무력강화문제에 대해 언급하였다.

그는 올해에 로씨야에서 통일적인 항공우주방위체제가 창설되게 된다고 하면서 이

불법무도한 행위 규탄, 미국인에게 징역형 언도

쿠바대표가 최근 유엔인권리사회에서 5명의 쿠바에국자들을 계속 감옥에 감금하고있는 미국의 불법무도한 행위를 규탄하였다. 그는 테로를 반대하여 싸운 쿠바에국자들이 부당하게 체포되어 미국에서 잔인하고 불공평한 감옥생활을 강

제를 현존 반항공 및 미사일방위체제와 미사일조기경보체제, 우주공간감시체제와 결핵적 통일적 지휘밑에 두어야 한다고 말하였다.

그는 나라의 국경을 믿음직하게 수호하는 것은 항구적인 과제라고 밝히고 원동지역 방위력을 현존 반항공 및 미사일방위체제와 미사일조기경보체제, 우주공간감시체제와 결핵적 통일적 지휘밑에 두어야 한다고 말하였다.

식량 위기

나라 통계국은 지난해 12월 에 식량위기가 11월에 비해 1.2%도 올랐다고 밝혔다. 특히 흰쌀가격이 현저히 올라 주민들이 수입의 70%를 식량유입에 돌리고 있다. 정부에서 식량문제해결을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조선중앙통신】

행동력을 발전시킬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주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국제적흐름은 대이란 제재포위환을 형성하여 어떻게 하나 이란을 굴복시키려는 미국이 있어서 우려되는 움직임이 아닐 수 없다.

이로부터 미국은 짐바브웨와 이란의 협조를 막아보려는 심산에서 이 나라를 공공연히 위협하는 내정간섭적인 망동을 부렸던 것이다. 이것은 국제관계규범과 원칙에 대한 반목한 행위로서 미국의 오만성의 발로이다. 매개 나라마다 다른 나라와 친선협조관계를 맺고 친선지정 권리가 있다. 짐바브웨가 이란과 협조하는 것은 남남협조의 일환으로서 국제관계규범과 원칙에 부합된다.

오늘 미국을 비롯한 서방세력들의 압력과 위협에 맞서 자기의 평화적행동권리를 끝까지 고수해나가는 이란인민의 투쟁은 확고부동하고 강경하다.

이란의 평화적행동에 대한 국제적인 지지와 연대성은 날로 더욱 강화되고 있으며 또한 이 나라와의 국제적협조도 긴밀해지고 있다. 미국은 현실을 똑바로 보고 다른 나라들에 대한 위협과 내정간섭행위를 당장 그만두어야 한다.

본사기자 신경섭

지진에 대처하기 위한 준비를 갖추것을 호소

몽골대통령 짜히아긴 엘베그도르지가 21일 한 회의에서 연설하면서 지진에 대처하기 위한 준비를 갖추것을 호소하였다.

그는 모든 주민들이 지진에 대한 상식을 잘 알고 일단 지진을 내뒀다. 재판소는 피고자 반국가범죄를 저지른 대에 대해 15년의 징역형을 언도하였다. 재판소는 그가 쿠바의 혁명적인 지도를 뒤집어엎기 위한 미국의 제도를 《전복》계획에 따라 미행정부의 재정적지원을 받으면서 활동하였으므로 판명되었다고 지적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자연피해

필리핀의 중부와 남부지역에서 최근 무더기비가 내려 피해가 있었다. 총피해자수는 14만 8540여명에 달한다. 한편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불가, 에네르기가격 인상

미국에서 심각한 경제침체로 물가가 계속 올라 주민들이 생활난을 겪고 있다. 16일 미로동성은 조사자료에 인용하여 2월에 전국적으로 도매가격이 그 전보다 1.6% 비싸졌다고 밝혔다. 이로써 그것은 연속 8개월

제 인상되었다. 또한 캐나다에서 올해 2월에 에네르기가격이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10.6% 인상되었다. 특히 휘발유가격이 많이 뛰어들었다. 18일 이 나라 통계국이 이에 대해 밝혔다.

세계적인 우려를 자아내는 일본의 원자로련속폭발사고

필리핀의 중부와 남부지역에서 최근 무더기비가 내려 피해가 있었다. 총피해자수는 14만 8540여명에 달한다. 한편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자주적인 삶을 위하여

기사양성, 산림조성 계획

중국에서 앞으로 10년동안 450만명의 기사를 양성할것을 계획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국각지에서 기사양성기지를 꾸려놓고 운영하게 된다. 또한 중국 길림성에서 앞으로 10년동안 100만ha의 산림을 새로 조성할것을 계획하고 있다. 이 기간 의무식수할

열염분체 개발

어느 한 나라의 연구진이 최근 120℃의 증기를 공급할 수 있는 효율 높은 열염분체를 새로 개발하였다. 냉동기에 리용되여온 2단압축기가 설치되어있는 이 체계는 폐수 등의 25~65℃ 더운물로부터 열을 회수하여 120℃ 이상의 증기를 공급한다. 【조선중앙통신】

마약반대투쟁

만다에서 마약반대투쟁에 힘을 넣어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이 나라의 반마약당국은 13일까지의 반마약투쟁기간에 산주와 카친주에서 179ha의 비법적인 아편재배지를 파괴해버렸다. 18일 신문 《뉴 라이프 오브 만다》가 이에 대해 밝혔다. 【조선중앙통신】



일본이 은 폭 발 과 화 재 로 파 괴 된 후쿠시마 원 자 력 발 전 소 원 자 로 들